온 돌 방

할머니는 겨울이면 무를 썰어 말리셨다
해 좋을 땐 마당에 마루에 소쿠리 가득
궂은 날엔 방 안 가득 무 향내가 났다
우리도 따순 데를 골라 호박씨를 늘어놓았다
실겅엔 주렁주렁 메주 뜨는 냄새 쿰쿰하고
윗목에선 콩나물이 쑥쑥 자라고
아랫목 술독엔 향기로운 술이 익어가고 있었다
설을 앞두고 어머니는 조청에 버무린
쌀 콩 깨 강정을 한 방 가득 펼쳤다
문풍지엔 바람 쌩쌩 불고 문고리는 쩍쩍 얼고
아궁이엔 지긋한 장작불
등이 뜨거워 자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뒤집으며
우리는 노릇노릇 토실토실 익어갔다
그런 온돌방에서 여물게 자란 아이들은
어느 먼 날 장마처럼 젖은 생을 만나도
아침 나팔꽃처럼 금세 활짝 피어나곤 한다
아, 그 온돌방에서
세월을 잊고 익어가던 메주가 되었으면
한세상 취케 만들 독한 밀주가 되었으면
아니 아니 그보다
품어주고 키워주고 익혀주지 않는 것 없던
향긋하고 달큼하고 쿰쿰하고 뜨겁던 온돌방이었으면

– 조향미, 「온돌방」, 『그 나무가 나에게 팔을 벌렸다』, 실천문학사

시인 : 조향미

1961년 경남 거창 출생. 부산대 국어교육과 졸업. 1984년 무크지 『전망』을 통해 작품활동 시작. 시집 『길보다 멀리 기다림은 뻗어 있네』, 『새의 마음』, 『그 나무가 나에게 팔을 벌렸다』 등이 있다.

시 해설

우리도 이런 온돌방에서 자랐습니다. 방 한쪽에 무가 마르고 호박씨가 널려 있고 메주 뜨는 냄새가 나던 방에서 콩나물처럼 쑥쑥 자랐고 향기로운 술처럼 익어갔습니다. 문고리 쩍쩍 얼어붙던 겨울날에도 여물게 자랐습니다. 지금의 아이들도 이런 온돌방에서 노릇노릇 토실토실 익어가며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마처럼 젖은 생을 만나도 / 아침 나팔꽃처럼 금세 활짝 피어나곤"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이 다가오면 생각나는 시입니다.

– 시인 도종환

CONTENTS

2010. 02

www.airforce.mil.kr **Vol.380**

04 **명사로부터 듣는다** _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산화신기전

06 **Leadership+** _ 성공적인 시간 관리법

08 **기획특집 1** _ 얼굴 없는 구조천사, 항공구조사들의 겨울나기

12 **기획특집 2** _ 그린나래 호텔, 1박 2일 체험기

18 **6 · 25전쟁 60주년 특집 2** _ 미리보는 6 ·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20 **훈련 36.5** _ 훈련의 중심에서 공군을 외치다!

22 **World-Wide Vision** _ 항공기 재활용

26 **참모총장 스케치**

28 **공군은 지금**

31 **PREVIEW** _ 2월의 문화행사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찾아가는 「창공클럽」, 글쓰기 교육 지원할 터

34 **권순정의 포토로그** _ 정월 대보름 소리

36 **e-Sports, 〈ACE〉** _ 공군ACE의 융중대책

39 **책마을** _ 위대한 선물

40 **전재인의 일상茶반사** _ 유비무환 정신이 깃든 5천원권 지폐

42 **Beauty 바이러스** _ 만지고 싶은 머릿결 만들기

44 **이등병이 쏜다!** _ 내 등 뒤에 든든한 버팀목

46 **생각하는 그림** _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쁘다

48 **박희숙의 Behind the Canvas** _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50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가족'은 문장입니다

52 **정홍래의 음악산책** _ 낭만적인, 너무나도 낭만적인

54 **장동하의 décalcomanie** _ 졸업

56 **Letters to the Editor** _ 2009년 12월호를 읽고서

표지설명 : 설악산 빙 · 설벽 훈련장에서 가상으로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출하는 제6전대 항공구조사들
표지사진 : 중사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뒤 표지 : 손청진 중위(진)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공군 February 2010 No.380

발행일자 | 2010년 2월 5일(통권 제380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 김규진

기획 · 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 · 인쇄 | 국군인쇄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산화신기전散火神機箭

작년 11월 27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동차 성능연구소의 넓은 자동차 주행시험장에서 세종 때의 로켓화기인 신기전의 복원 발사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발사시험에서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세계 최초의 2단형 로켓인 산화신기전(散火神機箭)의 2단 점화 실험이었다. 산화신기전은 길이 70cm, 직경 10cm의 종이약통에 길이 5.3m의 대나무 안정막대가 달린 형태이다. 약통의 앞부분에 지화통(地火筒)이 3개 장착된다. 지화는 길이가 14cm, 직경 2.3cm의 소형 로켓이다. 원래 땅에 묻어 놓고 적이 접근하면 점화를 하여 불이 하늘로 솟아올라 적들이 놀라 도망가게 하였던 무기이다. 산화신기전에서 지화가 바로 2단 로켓인 셈인데 1단 로켓의 화약 윗부분과 점화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1단 로켓의 화약이 모두 타면 2단 로켓인 지화에 점화된다. 3개의 지화에는 각각 소형폭탄인 소발화통(小發火筒)이 달려있어 목표물에 도착하면서 폭발하는 것이다. 산화신기전의 구조를 보면 현대식 미사일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대식 로켓무기가 지금부터 562년 전인 세종 때 이미 개발되어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의 4군6진에서 여진족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제작설계도가 남아있어 알려지게 되었다. 이날 발사대를 이륙한 산화신기전은 160m까지 상승하며 2단 로켓을 점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신기전은 2008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400만 명의 관객이 관람하였고 작년 말에 대종상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TV에서도 소개하여 신기전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신기전이 세계적인 로켓무기라는 것은 참으로 우연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필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로켓을 좋아했고 고 1 때는 과학전람회에 출품할 로켓을 만들어 시험하다가 폭발하여 한쪽 고막을 잃었다. 고등학생 때 최무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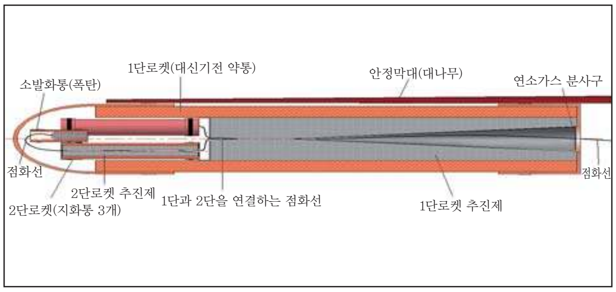
중국인을 통해서 화약 만드는 법을 배웠고 국산 화약무기를 개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무선이 우리나라 최초로 로켓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한 지 4년 만인 1975년 11월 '주화와 신기전 연구-한국 초기(1377~1600) 로켓 연구'를 역사학회에서 발표하여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로켓이 있었음을 처음 밝히게 된 것이다. 고등학생 때의 작은 생각이 우리민족의 자랑거리인 신기전을 밝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우리의 로켓 신기전은 상세한 제작설계 자료가 남아 있어서 복원 및 발사시험이 가능하였다. 신기전의 설계 기법은 지금의 현대식 기계설계 기법과 똑같다. 최소 길이 단위가 0.3mm인 리(釐)를 사용하는 점도 경탄할 만한 일이다. 신기전은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 중 소·중신기전은 사정거리가 100~250m 정도여서 적과 접근해서 싸우는 전투에서 무척 효과적이었다.

대신기전이나 산화신기전은 압록강이나 두만강 건너에서 진을 치고 침략하려고 준비 중인 여진족에게 발사하여 기선을 제압할 때 사용했던 무기이다. 때문에 사정거리가 강을 건널 수 있는 600m 이상의 대형 로켓이 필요했다. 대신기전은 중신기전보다 60배나 많은 3kg의 화약을 사용했다. 당시 가장 큰 포였던 장군화통보다도 3배나 많은 화약을 사용한 것이다.

중신기전이나 대신기전 또는 산화신기전의 앞부분에는 폭탄을 장치했는데 당시 로켓의 앞부분에 지금의 미사일처럼 폭탄을 장치하여 발사했던 것은 신기전이 처음이다. 초기의 로켓인 주화는 폭탄을 달지 않았는데 세종 29년(1447년)에는 주화를 개량하여 폭탄을 단 신기전이 등장한다. 길이 5.5m의 초대형 로켓탄이 굉음을 내고 불을 뿜으면서 수백m의 강을 10여 초 만에 건너가 떨어진 후 불을 뿜고 있다가 폭탄이 폭발하는데 도망가지 않을 오랑캐는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영화 '신기전'에서 대신기전의 발사 모습을 보고 성능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복원하여 발사를 해본 결과 영화의 발사 장면보다도 더 웅장하고 훌륭하였다. 대신기전은 자랑스럽게도 19세기 이전에 제작된 세계 최대의 종이약통 로켓이며 산화신기전은 세계 최초의 2단 로켓이다. 또한 신기전은 세계에서 제작설계도가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로켓이다. 세종 때 신기전을 비롯한 우리의 화약무기 수준이 세계 최고였던 점에 비춰보



산화신기전의 구조

면 조선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였을 것이라는 점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훌륭한 대신기전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뭘까. 대신기전은 강 건너 적군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인데 세종 때 4군6진(四郡六鎭) 개척이 끝난 뒤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다. 국경지대가 평화로운 상황에서 파괴력에 비해 화약 사용량이 많은 대신기전을 굳이 가동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로서는 적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신무기이기는 하였지만 파괴력이나 살상력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기전은 세종 이후에 계속 발전하지 못했지만 우리민족이 과학기술분야에 우수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충분하였다. 신기전을 비롯한 세종시대의 화약무기를 분석해보면 우리 민족은 참으로 우수한 창의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한 과학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우수한 잠재능력이 6·25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G20국으로 성장하는 기적을 이룩하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60년 만에 인공위성을 만들어 발사하고 원자력발전소와 초음속훈련기(T-50)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여자 골프선수들이 세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듯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자의 능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능력 또한 세계적으로 우수하다. 문제는 이들이 과학기술자를 꿈꾸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신기전에 대한 복원을 계기로 우리의 전통과학기술에 대한 재평가와 연구가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 본다. AF

글 **채연석**
-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
- 前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 항공우주공학 박사

성공적인 시간 관리법

글 김경섭 박사 | 한국리더십센터 그룹 회장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역자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이 되면 사람들마다 '올해부터는 기필코 일찍 일어나겠다', '담배를 꼭 끊고야 말겠다', '운동을 시작하겠다' 등의 계획을 세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운동을 하거나 영어를 공부하면서 자기 계발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려오는 아침잠을 물리치기 위해 일부러 신문 배달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해 시간을 알차게 보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 '인생이란 시간 그 자체' 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처럼 시간 관리에 성공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성공하기 때문이다.

세계 60억 인구는 날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공평하게 무상으로 받아 60억 가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시간은 저장하거나 저축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평등자산이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못다 쓴 잔액을 저금해둘 수 없는 돈과 같아서 날마다 남김없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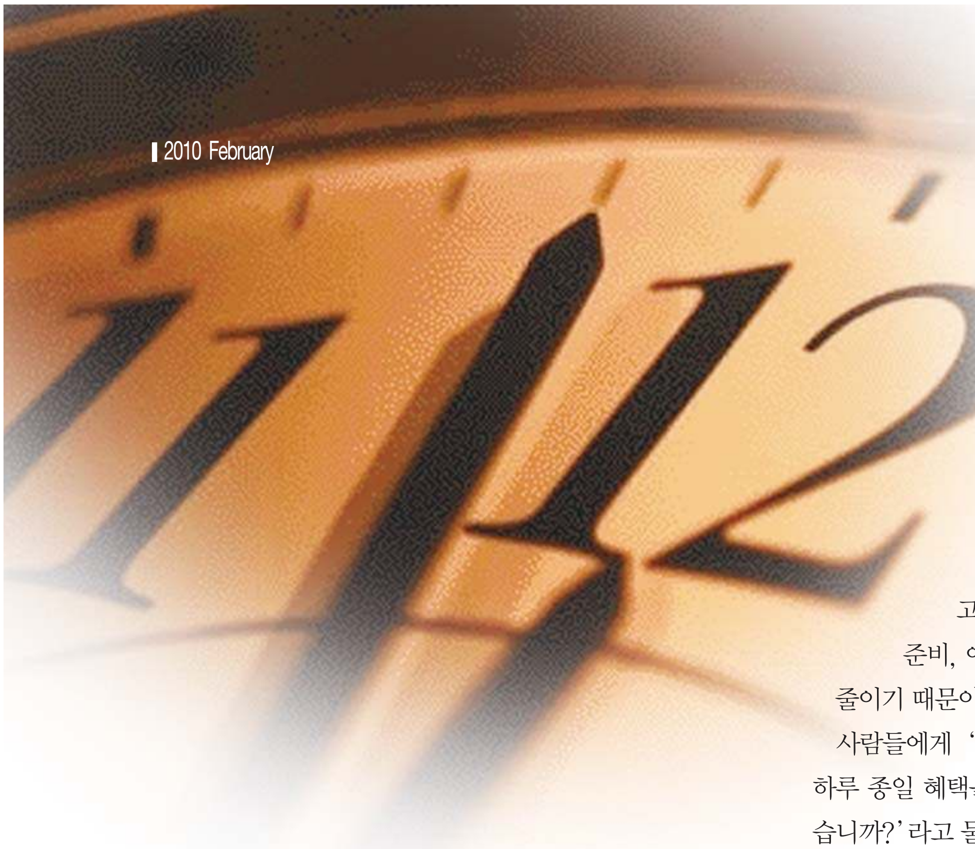
나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 '당신이 지난 한 주 동안 했던 일 중에서 1년 후에 생각해도 꼭 했어야 될 중요한 일 다섯 가지만 말해보라' 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만일 당신에게 24시간 외에 매일 3시간이 더 생긴다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고 물으면 대부분 그동안 바빠서 미뤄온 운동이나 공부, 가족과 함께 시간보내기, 독서, 휴식 등을 든다.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매일 분주하게 일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할 여유가 없는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점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분주해 정작 삶에 행복을 가져오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된 원인은 사람들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으나 아직도 옛날 농경사회의 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일의 종류와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은 농경사회에서는 급하고 쉬운 일 위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활동무대가 넓어지고 할 일이 많아진 디지털 사회에서는 급한 일을 좇아가다 보면 진정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는 도저히 시간을 할애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바쁜 현대사회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시간을 행복한 삶을 달성하는 가치 있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생의 목적 혹은 사명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필자는 과중한 회사업무에다 저녁마다 되풀이되는 접대, 과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체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가족을 돌보고 건강을 지키며 책을 읽고 쓰는 등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내 삶의 목적, 즉 '사명'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 '이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저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매번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고 선택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분별력이 생긴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두 마리 토끼를 집중적으로 쫓는 반면, 자신의 사명 없이 남들을 모방하거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에 대여섯 마리 토끼를 쫓느라 항상 바쁘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중심으로 질이 높으면서도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즉 삶의 목적을 설정하라고 강조하고 싶다.

둘째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불시에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거나, 불쑥 찾아온 방문객을 맞이한다거나, 눈앞에 벌어진 다급한 일들과 회의들, 그리고 반복되는 모임에 참석하는 일 등,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지나친 TV시청이나 시간을 낭비하는 잡담, 쓸데없는 우편물을 둘러보는 등 처럼 바쁘게만 만들고 성과가 없는 일, 즉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낭비하는 시간도 줄여야 한다.

대신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급하고 중요한 일의 영역을 줄일 수 있다. 계획과 준비, 예방을 통해 다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 사이를 투자해서 하루 종일 혜택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투자가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계획하는 단 몇 분, 그것이 바로 그 놀라운 투자이다. 계획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일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훨씬 작아진다. 가장 먼저 인생의 목적, 즉 사명을 발견하고, 소중한 일을 먼저 하며, 매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효과적이고 여유 있는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F

얼굴 없는 구조천사, 항공구조사들의 겨울나기

취재·원고 **편집실**
사진 **상사 한정근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중사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인적이 드문 산 속에서 주황빛의 연기가 피어오른다. 80m 높이의 빙벽에 조난당한 조종사가 매달려 있다. 곧 이어 항공구조사 2명이 의료 키트가 들어 있는 배낭을 어깨에 메고 빙벽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아이젠을 착용한 후 아이스바일을 두 손에 쥐고 조종사가 있는 지점으로 향한다. 일각을 다투는 구조현장에서 조난당한 조종사는 항공구조사들의 거칠지만 섬세한 손길을 통해 무사히 구조되었다. 지난 1월 27일,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 소속 항공구조사들은 설악산 인근 빙벽에서 실제를 가상한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내 목숨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

'붉은 베레'를 쓴 항공구조사들의 기본 임무는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하는 것이다. 상황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곳이 산악이든 바다이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들은 기본군사훈련 이외에도 고공 낙하, 스킨스쿠버, 클라이밍, 응급처지술 등을 연마해야 한다. 전군을 아우르는 '만능 군인'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들의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된 것은 지난 2006년 3월 14일 09시29분. 비상 출동 사이렌이 항공구조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항공기 ○○31 비상 출동! 미군 조난 조종사 1명, 좌표 N354○○○ E126○○○."

실제 상황이었다. 출동 연락을 받은 강용수 원사는 동료 1인과 함께 구조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활주로를 향해 뛰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 상황을 머리에 그리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했다. 드디어 도착한 군산 앞바다는 악천후였다. 파도는 3m가 넘어 보였고, 강풍에 헬기가 요동쳤다. 멀리서 주황색 연막이 눈에 들어왔다. 3월이지만 바다는 한겨울이다.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험한 파도가 강 원사와 조종사 사이를 자꾸만 벌려 놓았다. 조종사는 저체온으로 탈진 상태. 때마침 거대한 파도가 조종사를 강 원사 쪽으로 밀어붙였다. 순간 팔을 뻗어 목덜미를 낚아채 미군 조종사를 끌어안았다. 구조된 시그먼드 대위는 두 차례나 탑건으로 선정된 엘리트 조종사다. 그는 강 원사를 비롯해 함께 출동했던 파트너를 부대로 초대해 "이제 우리는 한 팀이다. 한국의 '붉은 베레'는 최고 중의 최고"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렸다. '09년 9월 30일 이후로, 미군 탐색구조 임무가 한국군으로 전환되었다. 그 날 이후 한반도에선 더 이상 미군 탐색구조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6전대 소속 항공구조사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결과였다.

'붉은 베레'의 항공구조사로 산다는 것

남자답게 멋있게 군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항공구조사에 자원한 뒤 25년 가까이 붉은 베레모를 쓰고 있는 강용수 원사는 스킨스쿠버, 응급구조사 등 20개 이상의 관련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굵직한 현장 경험을 두루 거쳤다.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출하는 임무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이었던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그의 손길이 닿았다. "TV로 재난 상황 소식을 접하게 된 순간, 전 이미 그 현장에 가있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항공구조사들은 실제 구조임무와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이유로 선임이 후임을 길러내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다양해지는 비상 재난상황과 새로운 구조 기법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며 최고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공구조사들은 항상 새로운 현장 경험과 구조 기법에 목이 마르다. 또한 평소에 민간 구조팀들과 맺어진 인적네트워크는 합동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이 이번 겨울, 설악산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이다. 항공구조사들은 눈과 얼음이 뒤덮여 있는 곳에서 겨울을 보낸다. 이번 빙·설벽 훈련 이외에도 2월에는 얼음을 깨고 물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내한훈련'과 '동계행군'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잦은 훈련과 비상 대기로 인해 명절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불만을 터뜨리지 않는다. "항공구조사의 길은 자기 자신의 희생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굉장히 보람있는 일입니다."라며 강용수 원사는 말했다. 문득 눈앞에 "내 목숨 버려도 조종사는 구한다"는 글귀가 스쳐간다. 그렇다면 구조사의 목숨은 누가 구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건 철저한 자기관리와 가족들의 응원이 아닐까? 그들의 얼굴을 다시금 떠올려 본다.

항공구조사들에게 필요한 것

온종일 영하의 추위 속에서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후 항공구조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선, 항공구조사들은 미군과 달리 구조현장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이 100% 인정받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현장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상황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단연 항공구조사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항공구조사들의 전문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신규 획득 인원에 대해 기본훈련을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 공인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시킬 계획이다.

보통 한 명의 작전가능한 항공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4~5년의 기본교육과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친 자원이 장기 선발에서 탈락한다면 이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다. 조종사를 구하는 항공구조사는 특수병과로서 유연한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NASA는 2003년부터 우주인 구출훈련 임무를 미공군이 맡도록 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항공

우주군으로 도약하려는 공군에게 큰 의미를 주는 부분이다. 우주조종사 양성을 계획하고 있는 현재 우주인력 구조 임무의 적임자는 바로 항공구조사들이다. '09년 8월에 발사되었던 나로호 발사체 주변에 소방 방재청 인력들이 나와 현장을 감독하고 있던 모습을 TV로 지켜봐야 했던 항공구조사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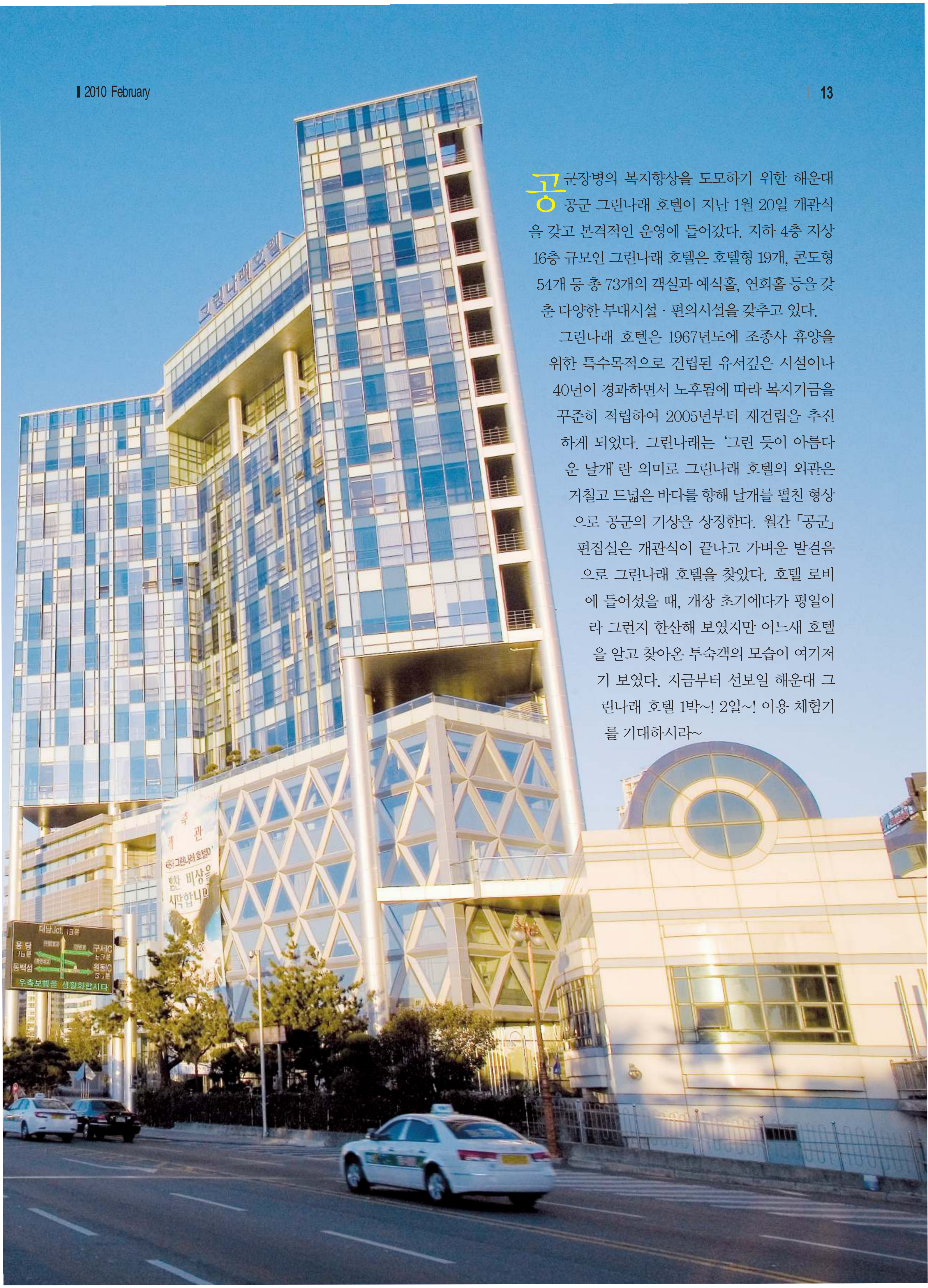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특수병과가 지닌 한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현재 상황을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책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화하여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씩씩한 입장이다. 비록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항공구조사들에게 '얼굴 없는 구조천사'란 별명을 붙여보며 빙벽을 등반하는 그들과 서서히 멀어졌다.

동계 빙 · 설벽 훈련 현장

1. 아이젠 워킹 훈련 : 이론교육을 마치고 기본적인 아이젠 워킹을 통한 혹한 지역에서의 기초적응 훈련
2. 장비 사용법 : 기초교육을 마치고 등반 전 안전교육 및 장비 활용법과 제반 훈련절차 교육
3. 빙 · 설벽 기초 이동법 : 빙벽 상승 훈련 전 기초적인 절차교육 및 자세, 안전수칙 교육
4. 확보줄 사용법 : 전문 강사의 안전 확보줄 설치 방법 및 빙 · 설벽 상승, 하강 훈련
5. 빙벽 상승법 : 아이스바일과 아이젠을 이용한 빙벽 상승훈련
6. 설상조난자 탐색법 : 혹한기 설상지역에서의 조난자 탐색 및 구조 훈련
7. 환자업고 하강 : 단순골절 또는 경미한 조난자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빙벽 하강훈련
8. 들것 환자 후송 : 척추손상으로 의심되는 조난자를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훈련

그린나래 호텔, 1박 2일 체험기

취재 · 원고 **편집실**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공군장병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운대 공군 그린나래 호텔이 지난 1월 20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인 그린나래 호텔은 호텔형 19개, 콘도형 54개 등 총 73개의 객실과 예식홀, 연회홀 등을 갖춘 다양한 부대시설 ·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린나래 호텔은 1967년도에 조종사 휴양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건립된 유서깊은 시설이나 4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됨에 따라 복지기금을 꾸준히 적립하여 2005년부터 재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린나래는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란 의미로 그린나래 호텔의 외관은 거칠고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날개를 펼친 형상으로 공군의 기상을 상징한다. 월간 「공군」 편집실은 개관식이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린나래 호텔을 찾았다. 호텔 로비에 들어섰을 때, 개장 초기에다가 평일이라 그런지 한산해 보였지만 어느새 호텔을 알고 찾아온 투숙객의 모습이 여기저기 보였다. 지금부터 선보일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 1박~! 2일~! 이용 체험기를 기대하시라~

해운대 백사장과 드넓은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스텔스기와 흡사한 모습의 16층 건물이 눈앞에 보인다.

그린나래 호텔, 잘 알지도 못하면서

1박 2일 체험기를 시작하기 전 그린나래 호텔을 둘러싸고 있는 오해에 대한 진실게임을 시작해보려 한다. 호텔 방문 전, 그린나래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군 숙박시설로는 어울리지 않게 호화시설인데다 일반인들에게도 객실을 대여하는 등 수익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한 관광객들과 지역 숙박업계의 반발이 있다는 것이다. 외관상의 모습만 봤을 때는 그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건물 외부가 고급스러운 통유리로 둘러싸인데다 건물 내부 연회장과 예식홀에 샹들리에가 설치돼 있고 독특한 외관과 높은 스카이라인 등이 주변의 고급 호텔과 콘도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지 그린나래 호텔 건설에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었기 때문일까? 주변의 고급 호텔과 콘도를 둘러보자. 주변의 대표적인 콘도는 1984년에 또 다른 호텔은 1978년에 완공된 건물이다. 완공된 지 30여 년이 지난 건물들과 이제 막 완공된 건물의 외관을 비교하는 건 갓 출시된 신형 세단과 이미 30년된 세단의 외관을 비교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위해서라면 대부분의 객실을 일반인에게 먼저 대여를 한 후 남는 객실을 공군 장병들에게 할당해야 할 것이다. 이용료가 평균 3~4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선 대상자인 군 관계자들에게 먼저 대여하게끔 되어 있고 그때 예상되는 공실률이 8% 정도이기 때문에 그 객실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는 것이 그린나래 호텔의 관리를 맡고 있는 서정렬 소령의 말이다.

결론적으로 휴양소를 짓는 이유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30년 전에 지어진 호텔과 비슷한 수준으로 외관을 꾸며놓았다면 앞으로 최소 40년을 사용해야 할 그린나래 호텔은 머지않아 다시 공사장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한 가지 더, 물론 예산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인 복지금이다. 복지금이란 남아있는 만큼 사용해 버릴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선배 공군인들이 후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잘 적립하여 지금의 그린나래 호텔을 있게 만든 것이다. 최근 3군의 복지단이 통합된 가운데 현재 공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휴양소는 서울 공군회관과 그린나래 호텔 2곳뿐이다. 서울 공군회관은 출장자들이 하루 이틀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어 휴양소라고 볼 수 없다. 결코 총 인원대비 공군의 휴양소가 과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❶ 콘도형 객실
❷ 신부 대기실
❸ 호텔형 객실
❹ 연 회 장
❺ 커 피 숍

해운대, 그리고 그린나래 호텔 속으로

정오쯤 열차를 타고 향했던 부산역에 내리니 어느덧 저녁이 성큼 다가왔다. 부산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서면에서 내려 2호선으로 환승한 후 해운대역에서 내렸다. 도보로 10분 이동하니 해운대 백사장과 드넓은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스텔스기와 흡사한 모습의 16층 건물이 눈앞에 보인다. 외관이 전부 유리이다. 주변 경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인 듯하다.

입구의 자동문을 통과하면 왼편으로는 커피숍, 중앙에는 로비,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호텔 근무원들이 서 있는 데스크가 보인다. 보통 호텔 커피숍에서 분위기를 잡고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식사비 이상의 비용이 나온다. 분위기 있게 커피를 마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속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다. 하지만 그린나래 호텔에서 만큼은 예외이다. 호텔이 아닌 일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커피뿐만 아니다. 각종 음료 및 아이스크림까지 부담없는 가격에 로비에서 한껏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박을 하게 된 14층에 올라갔다. 필자가 묵었던 숙소는 호텔형(9평형)이었다. 객실에 따라 더블 베드와 트윈 베드가 놓여 있다. 인원수에 맞춰서 예약시 미리 말해 두는 센스를 발휘해 보자. 실제로 전 객실에서 바다가 보인다. 아침에는 일출을, 저녁에는 일몰을 객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주변의 고층 호텔과 아파트의 배치까지도 그린나래 호텔에서 바라보면 장관을 이룬다. 객실인지 전망대인지 구분이 어려운 정도이다. 객실은 총 73개(콘도 54개, 호텔 19개)이다. 콘도에는 가족 단위 휴양객을 위해 취사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조리시 가스가 연소되어 발생되는 매연을 없애고 화재가 날 것에 대비해 Cooktop 시설이 갖춰져 있다. 넓은 소파, 벽걸이 TV, 그리고 그 옆으로 시선을 돌리면, 드넓은 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2층부터 6층까지는 예식홀과 연회홀을 비롯한 부대시설과 노래방, 편의점 등의 편의 시설이 있다. 친구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는데 혹시 주례사가 너무 지겹다면? 잠시 창가로 시선을 돌려 푸른 바다 속으로 눈을 맡겨보자. 지겨운 주례사에 눈살을 찌푸릴 필요없다. 5층에는 야외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어 바다와 주변의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절경을 맛볼 수 있다.

보통 호텔의 가장 꼭대기 층에는 펜트하우스가 들어서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린나래 호텔의 꼭대기 층인 16층에는 객실이 없다. Sky Lounge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제는 사유재가 되어버린 꼭대기 층의 전망을 어느 정도 다수의 이용객들에게 돌려주었다. Sky Lounge는 이름 그대로 바다와 함께하는 한 잔의 모닝커피, 식사류, 그리고 간단한 주류가 준비되어 있다. 단, 월요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기도 하므로 이용하기 전에 미리 연락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가 제공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필자가 찾았던 날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은 날이었다. 눈과 입이 호사스런 점심의 기회는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푸른 바다와 하늘, 하얀 모래와 파도가 어우러진 그린나래 호텔의 최대 강점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인접한 위치이다. 1층에서 16층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주변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며 이용 요금 또한 저렴하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AF

부임하 …부터 개관식까지 지난 … 간 혼자서 그린나래 호텔 … 임진 서정렬 소령은 오랫동안 복지단 … 공군회관장 근무를 거 … 서 호텔 업무의 노하우를 … 았다. 그가 생각하는 그린나래 호텔에 … 들어봤다.

공군 장병 모두가 부담없이 즐… 는 공간이 되길

…정렬 소령(해운대 호텔 T/F 팀장) 인터뷰 –

M…i Interv…ew

Q 그린나래 호텔을 개관하기까지 지난 2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본다면?

A 2009년 11월 20일에 35개월간의 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막 부임했을 당시는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55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 호텔 최초로 도시경영연구원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겼고, 객실내 비품을 마련할 때도 역시 군 호텔 최초로 2단계 경쟁입찰을 도입해 가격과 품질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공군회관을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Q 공군 장병들이 그린나래 호텔을 이용할 때 혜택이 있다면?

A 일단 호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객실의 경우 1평당 이용요금이 공군회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 위치한 커피숍에서는 양질의 원두를 사용함에도 커피 한 잔을 2,000원이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무유공 조종사들에게 객실 무료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연회, 예식, Sky Lounge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Q 현재 그린나래 호텔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 시설이 부족한 것입니다. 현재 대안으로 호텔 옆 공터를 주차 부지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예식홀과 연회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재 사우나 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근처 글로리 콘도에 있는 사우나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Q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A 공군 장병 모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텔 인테리어를 꾸미기 위해 40개가 넘는 전국의 유명 콘도와 호텔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건축박람회, 웨딩박람회, 자재박람회에까지 말이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미소와 친절로 최선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꿈, 우주를 향한 도전

한국항공소년단

– 입 단 안 내 –

1. 시기 : 연중 계속
2. 입단방법 : 홈페이지 가입(www.yfk.or.kr)
3. 주요활동

연 중 행 사	항공사상 고취 행사
□ 찾아가는 항공 과학 교실 □ 연합선서식 및 발대식 □ 항공우주과학시설 및 비행단 견학 활동 □ 지도자 연수(초급, 고급) □ 지도자 항공 기능교육 □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	□ 제3회 청소년 하늘축제(5월) □ IACE 국제교류캠프(7월 20일 ~ 8월 4일) □ 공군항공우주캠프(7월 26일~29일, 공군사관학교) □ 영-리더 하계 항공캠프(8월, 제주도) □ 하/동계 항공캠프 □ 항공우주과학 경연대회(10월) □ 교장단 항공우주산업시설 견학(10월)

4. 수품(단복)문의 : 수품부 홈페이지(www.yfkmall.com)에서 구입
5. 기타문의 : 한국항공소년단 02-953-7543~4

서울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

미리보는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자료제공 **공군본부 공보과** | 원고정리 **편집실**

공군은 최근 6 · 25전쟁 60주년을 맞아 전 공군 장병 및 군무원이 6 · 25전쟁을 상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호국보훈의식을 함양하고자 60주년 기념사업 포스터, 배너를 설치하면서 6 · 25전쟁 60주년을 기념하는 교육 홍보 및 사업 시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6 · 25의 포화에서 평화, 내일의 희망까지!]라는 표제로 각 부대 정문, 강당, 복도 등에 연중 설치되는 기념포스터를 통해 장병들은 올해 6 · 25전쟁 60주년을 깊이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공군 6 ·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단은 정부/국방부와 연계해 6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12개 자체 사업을 확정하고 지난 1월 21일, 6 · 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주관/협조 부서별 실무회의를 갖는 등 기념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6 · 25전쟁의 실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의식을 계승하기 위해 한국공군의 전승 주력기종인 'F-51 무스탕기 인수 재연'을 포함한 '공군작전 기념행사'와 '순직공중근무자 추모비 건립', '참전용사 증언록 제작', '6 · 25 참전 호국영령 추모행사' 등 5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참전국가 국기게양대 설치', '6 · 25전쟁 미공군 역사발굴', '호주 공군 참전기념 동판 제막식', '참전용사 초청행사' 등을 통해 참전 용사 및 참전국에 감사와 경의

를 표하기 위한 4개 사업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6·25전쟁의 실상과 공군의 활약상을 소개하기 위한 '6·25전쟁과 공군력' 영상물을 제작하고 빨간 마후라의 고향인 강릉 소재 통일공원내 '공군안보단지 조성', '6·25전쟁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3개 사업을 추진한다.

1월 11일 취임한 박장경 공군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단장은 "공군 전 장병이 6·25전쟁 당시의 실상과 공군의 활약상을 이해하여 안보의식과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해 나가는데 주력하면서, 1949년 공군 창군 이후부터 6·25전쟁 참전에 이르기까지의 공군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항공우주군 건설」이라는 공군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부·정부와 연계한 사업과 공군 자체 사업을 통해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참전용사 및 가족의 명예선양, 참전국과의 유대강화에 전 공군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피력했다.

공군 60주년 기념사업단은 6·25전쟁시 공군 활약상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해 영화 「빨간 마후라 2」 제작을 지원하고 6·25전쟁 관련 각종 기획프로그램과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와 공군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갈 계획이다. AF

사업별 행사일정

구 분	사 업 명	2010년 행사시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공군 자체 추진사업 (12개)	공군작전 기념행사				10월
	공군 전투기(F-51) 인수재연행사				10월
	참전국가 국기게양대 설치	2월	~4월		
	6·25전쟁 미공군 역사발굴	2월	~6월		
	공중전사자 추모비 건립	1월	~6월		
	6·25참전 호국영령 추모행사	1월		~10월	
	강릉 통일공원 공군 안보단지 조성	2월	~6월		
	호주 공군 참전기념 동판 제막식	3월	~6월		
	공군 6·25전쟁 참전용사 초청행사		5월	~7월	
	6·25전쟁 기념영상물 제작	2월	~5월		
	참전용사 증언록 제작	2월		~8월	
	공군 6·25전쟁 홍보 홈페이지 제작	3월			

❶

훈련의 중심에서 공군을 외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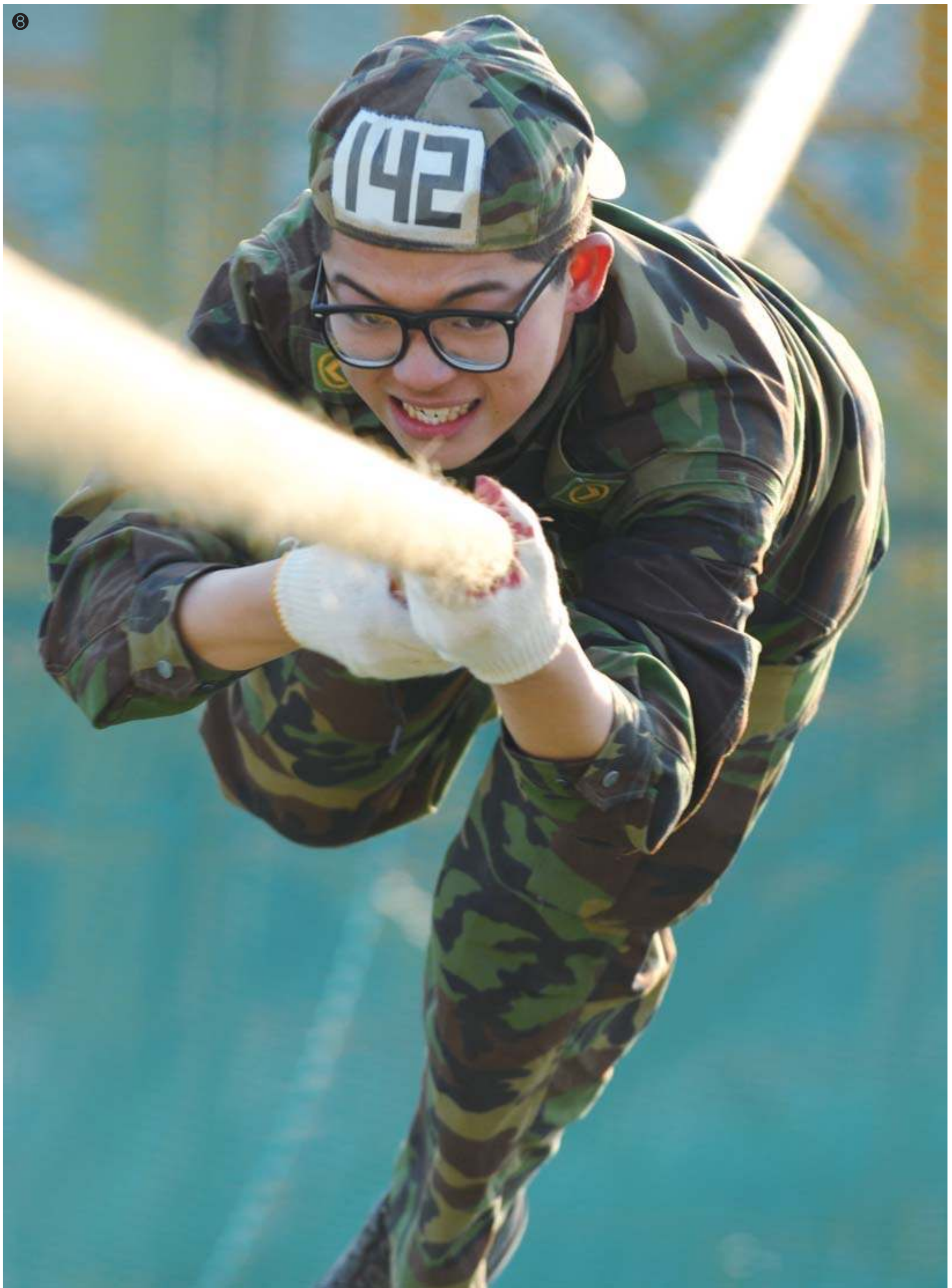
– 항공과학고 3학년생 졸업맞이 유격 훈련 –

글 편집실 사진 상사 한정근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제000번 보라매 도강 준비 끝!!!"
힘찬 구호와 함께 유격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기구 훈련에 돌입한다.
1월의 추운 날씨 속에서 졸업이 얼마남지 않는 예비 하사들의 유격훈련,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보자.

❷

1. 구름다리 건너기
2. 목봉 훈련
3 · 4 · 5. 고공 공포 단련
6. 밧줄 오르기
7. 훈련 슬로건
8. 외줄 타기



항.공.기.재.활.용.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번역 중위 신현 | 국군심리전단

Bill Amparano는 유년기 시절에 수천 개의 노후 항공기들이 보관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동경하였다. 그가 유년기 시절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한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30년 뒤 그는 애리조나 주 Tucson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의 꿈을 이루어 냈다.

260에이커 규모의 사막에 위치한 309항공 정비 및 재생단에 보관된 퇴역 및 잉여 항공기는 공군에서 운영되는 현역 항공기 대수와 비슷하며 4,000여 대의 서로 다른 군, 조직 및 국가의 항공기를 포함한다. 이들 항공기 중에는 2차 대전 에이스와 9/11 최초 대응반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몇몇 항공기는 실제 상황에 투입되기 전까지 보관되지만 다른 항공기들은 평생 비행을 못하며 공군의 부품 조달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다. 항공기 정비사 Amparano는 현재 현역항공기의 운영을 돕기 위해 부품을 탈착하는 재생팀에 배속되어 있다. 2009년 재정보고에서 애리조나 주 Davis-Monthan 비행기지의 AMARG 재생팀은 18,000개의 부품을 탈착했고 신형 부품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6억 33백만 달러를 절약하였다.

올해 12월이면 Amparano가 309 AMARG에서 기체 및 항공기 정비사로 근무한 지 21주년을 맞는다. 그는 우선순위 제거 팀과 일하는 하루 하루가 새로운 모험이라고 말한다. 그의 가장 최근 우선순위 제거 임무는 C-5 Galaxy에서 수송칸 바닥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바닥 부분은 조지아 주의 Robin 항공기지 항공 군수 센터에서 부식 시험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 시험 결과는 C-5전체 항공기에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지난 이틀간 그는 수송칸 바닥의 좁은 구멍에 앉아 지루하게 리벳들은 깎고 두들겨야 했다. 각각의 리벳들을 바닥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3분이 소요되고 이런 리벳들이 수천 개가 있다. 이 부분은 길이가 48feet나 되었고 그는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하루를 더 투자해야 한다. 물론 그는 냉혹한 애리조나 주 태양아래서 일한 것은 아니지만 기온이 105 화씨까지 올라가는 갑갑한 바닥 아래 공간에서 이틀간 작업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그와 577물자재생대대의 항공기 엔지니어들은 일주일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려 있다. 작업 완료를 위해 어떤 날은 추가적인 인원의 도움을 받고 어떤 날은 야근까지 해냈다.

긴급팀 정비사의 평소 일과는 Amparano같이 70개의 기체에서 부품을 제거하는 것이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한다. Amparano는 “여기서 몇 년을 일하든 언제나 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닥치게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런 항공기 부품들이 항공기 비행 운영을 위해 쓰이지 않을 때는 훈련 모형이나 C-5의 수송칸 바닥같이 연구 및 개발에 사용한다.

사진 1_기수가 제거되어 13.5feet 높이의 개방된 화물칸이 노출된 C-5A가 Davis-Mounthan Air Force 기지의 폐선장에서 자매 기종을 잡아먹을 듯한 형상을 띠고 있다. 이 항공기들은 비행에서 은퇴했지만 그들은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그들의 부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사진 2_**보존 기술자인 Sal West는 F-4 팬텀기에 앉아 항공기를 환경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무 코팅을 뿌리기전에 밀봉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 **사진 3_**항공기 정비사인 Virgil Richardson이 C-5A 갤럭시 기의 후방 출입문 틀에서 작업 지시서를 검토하고 있다. Richardson은 다른 항공기들을 보충하기 위한 부품을 제거하기 위해 2주 동안 이 항공기의 어두운 배속에서 작업을 했다. 한여름에는 항공기 안 온도가 화씨 1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재생에는 계획된 재생과 우선순위 재생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계획된 재생의 경우 항공기 소유주가 기체가 도착할 때 제거되어야 할 세이브 목록을 만들어 낸다. 이런 부품들은 새로 설비되고 필요시까지 저장된다.

우선순위 재생은 누군가 항공기 부품이 즉시 필요할 경우 사용된다. AMARG로 요청이 들어오면 항공기 정비사들은 부품을 탈착한다. 탈착 후 부품을 청소하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는 검사를 거쳐 선적한다. 그 부품의 크기에 따라 당일에 배송될 수도 있으나 비행경로를 따라 정비사가 비행 불가능 항공기에 관련해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계획팀은 작업 명령을 긴급 물품으로 분류한다. 대부분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위해 부품이 필요하다면 그 부품을 즉시 탈착하여 검사를 받은 뒤 선적된다.

긴급제거팀의 정비사 Jim Blyda의 경우 전투항공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긴급부품을 탈착하는 것은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이다. “일과 후라도 우리가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해낸다. 우리는 한 팀으로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일한다.”라고 말했다.

Blayda는 Tucson 토박이이며 현역으로 복무한 적은 없지만 309 AMARG에서 일하는 것은 가족의 전통이다. 그의 아버지, 장인과 형제들은 다 여기서 일했다. 7년간 부품을 탈착하면서 일해 온 그는 하루하루 각각의 작업과 각각의 항공기들은 지금도 다른 도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경험으로 배우는 것 중 하나는 화씨 100도 이상의 작업환경에서 Desert Harvester Ants를 피하기 위해 계속 움직이고 코요테나 방울뱀을 조심하는 것이다. 항공기가 사막 기후 야생동물을 견뎌낼 수 있게끔 항공기들은 철저한 보존절차를 거친다. 항공기가 도착하면 보관 분류에 따라 보존시킨다. 부식될 수 있는 모든 부품들은 제거되고 연료가 배출되며, 보존 연료가 엔진을 통하게 한 뒤 다시 방출된다. 항공기는 세척되고 배출체계 또는 폭발 자재가 제거되며 마지막으로 지정된 장소로 견인된다.

주차가 완료되면 담당팀은 열은 방수 테이프를 붙이고 입구와 해치를 봉인하기 위해 검은 스프레이식 고무 코팅 2겹이 입힌다. 항공기 안의 온도를 실외 온도보다 10~15도 떨어뜨리기 위해 검은 코팅 위에 하얀 겹 코팅을 입힌다. 코팅양과 항공기 코팅 위치는 보관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3곳의 주요 보관 분류가 있다. 1,000, 2,000 및 4,000이다.

1,000은 전장 예비이다. 이 항공기들은 다시 재생될 수 있음으로 보존해야 되는 부품이 많고 따라서 가능한 많은 양의 고무로 코팅된다. 4년 주기로 항공기가 처음 왔을 때와 같이 재처리된다. 1,000은 다른 공급책이 있는 한 부품 탈착 담당자들이 부품을 제거할 수 없다. 비행 금지된 부품이 항공기가 부품을 필사적으로 필요해 하더라도 안 된다. 부품제거는 항공 인원 임원의 요청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탈착이 승인된 후 사용자가 다른 예비 부품을 구하게 되면 사용가능한 부품을 반송해서 보관중인 항공기에 다시 장착되어야 한다. 2,000대 보관 분류에 있는 항공기는 소유주 또는 체계 프로그램 관리자가 제거를 승인하면 부품 획득을 위해

사진 4_항공기 정비사인 Mattew Rinaldi는 애리조나 주의 Davis-Monthan 공군기지의 "폐기장"에 있는 해군 MH-54 해룡에서 긴급 순위 부품을 찾고 있다. **사진 5**_항공기 정비사 Fred Vegas는 애리조나 주 Davis-Monthan 공군기지의 "폐차장"에서 C-5 Galaxy의 trailing edge의 일부를 flap에서 제거하고 있다. 이 부품은 보잉에서 구조 시험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사진 6**_항공기 정비사인 Fred Vega와 Mattew Rinaldi는 "폐차장"으로 잘 알려진 309 AMARG에 있는 KC-135 Stratotanker의 항공 승무원 의자를 제거하고 있다.

사용될 수 있다. 4,000대 분류는 자유 사용 가능으로 고려된다. 모든 부분이 재사용되고 제거될 수 있다. 1,000 분류 항공기들은 매끄럽고 하얀색이며 고무 코팅으로 칠해져 있지만 4,000 분류는 주로 항공기 기체의 남은 잡동사니들이다.

Jerry Ferguson는 1년 이상 부품을 탈착해 왔다. 그는 월남전에서부터 사막의 폭풍 작전까지 21년간 공군에서 복무했다. 그는 F-111D Aardvarks를 정비하고, F-16 Fighting Falcon의 모든 4종 및 F-4D 팬텀의 겉과 속을 모두 아는 전투기 남자라고 공언한다. 그가 여기 있는 동안 그가 현역 시절 정비를 했던 항공기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던 F-4s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저쪽에 있는 815의 경우 variamps가 열릴 때마다 경첩 핀이 부러지는데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다." Ferguson은 약간 웃더니 말을 이었다. "내 나이를 보면 이 항공기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 항공기들에서 부품을 제거하는 대다수의 정비사들은 한때 공군 정비사들이었고 몇몇에게는 항공기를 분해하는 것이 향수를 불러오기도 한다. "평생 동안 항공기가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왔는데 예전에 정비하던 항공기들이 여기서 부품 획득을 위해 분해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다."며 309 AMARG 계획팀장인 예비역 공군 헬기 정비팀장 Dave Jordan이 말했다.

578 보관 및 폐기 대대에서 보관 비행장 및 은퇴한 공군 정비사로 다양한 기체를 다루어온 Jack Krugur에 의하면 이 항공기들에 있는 몇몇 장비들은 상호 교체가 가능하다. 정비사들은 몇 가지 부품의 경우 F-15 이글에서 F-16 Fighting Falcon으로 그리고 C-130 Hercules 항공기에서 KC-135 Stratotankers에 교체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많은 수의 항공기들이 동일한 제작사에 의해 생산되었으므로 부품들은 다른 군 사이에서도 유용하다. 공군의 F-111 Aardvark의 착륙 기어의 경우 해군의 A-7 Corsair II에 장착 가능하다. 해군의 ES-3 Shadow는 A-10 Thunderbolt II와 동일한 엔진을 사용하며 C-130 Hercules 엔진은 해군의 P-3 Orion과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기체가 얼마나

7	8
	9

사진 7_보존 기술자인 Gerado Liamas는 바로 은퇴한 C-130 Hercules의 흡입구와 이음새를 포장하고 있다. 애리조나 사막에서부터 항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선 항공기는 봉인되고 스프레이 방식 코팅으로 덮어야 한다. **사진 8_**항공기 정비사 Virgil Richardson은 C-5A Galaxy 수송칸 바닥의 48-foot 부위를 연결하는 리벳들은 갈아내고 있다. 각각의 리벳을 갈아서 바닥으로 통과시키는 데는 2~3분이 소요된다. 이 부품은 부식 시험에 사용되기 위해 제거된다. **사진 9_**긴급 부품 정비사인 Jim Blayda가 착륙 기어의 체크 밸브를 제거하기 위해 F-4 팬텀 날개 아래서 작업하고 있다. 이 밸브는 QF-4 드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됐다.

많은지 아시면 놀랄겁니다.” Kruger가 말했다.

309 AMARG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기관과 자신들의 고객의 돈을 아끼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해있다. 309 AMARG의 계획 및 프로그램 팀장인 Bob Foley는 전대의 21세기를 위한 공군 향상된 작전의 노력을 감독했다. Foley는 35년 전 항공기에서 부품을 탈착하는 항공기 정비사로 309 AMARG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조직 지휘자들과 함께 309 AMARG의 능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oley는 309 AMARG 임원들, 공군 자재 사령부, A4 및 전역 군수 지원 센터 임원들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계획된 복구 노력을 재확립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AMARG 임원들은 C-130 F-15 및 F-16을 포함한 대량의 항공기 보관을 위해 수령했다. 이런 항공기들은 야전에서 부품 요구를 필요로 하는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지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Foley는 AMAMRG가 지속적으로 현재 모델의 항공기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부품을 복구하는 방법 및 항공기들을 유지하는데 부품들이 쓰일 수 있도록 부품의 가용성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부품들이 가장 최고의 방도로 쓰이길 원한다.” 그는 말했다.

Foley는 벌써 은퇴 시점을 지났지만 그는 그가 은퇴하기 전에 그들의 팀이 노력해온 극적인 개선책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작업의 품질은 공군과 납세자에서 예외적인 가치이다. 제 생각엔 우리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지만 가격을 매기기는 어렵다. 우리가 생산해 내는 것은 돈으로 환산된 것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 Foley가 말했다.

Foley는 날씨, 장비 다수의 작업 같은 요소들이 AMAMRG에서 하는 작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좀 더 가늠하기 어려운 요소는 역사와 오늘날의 항공기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팀이 몇 천 개의 리벳을 제거하는 기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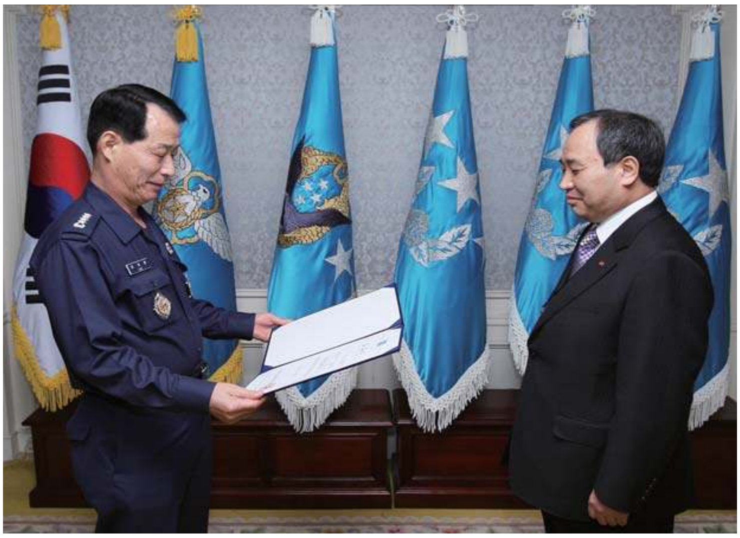
Hot SKETCH

◎ 2010년 공군 업무계획 보고

참모총장은 1월 26일 공군본부 중회의실에서 계룡대를 방문한 국방부장관에게 공군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09년 업무 성과와 2010년 업무추진 중점, 국방중점 과제에 대한 공군 실천 계획, 공군 주요 현안을 보고한 자리에서 "전방위 군사 위협 대비,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G-20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위협에 대한 우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로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보고했다.

◎ 2010, 신년 지휘비행

참모총장은 1월 6일 우리 공군의 완벽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최강 전투기인 F-15K로 새해 첫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제11전투비행단 102전투비행대대 소속 F-15K에 탑승하여 1시간여 동안 공중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다짐하며, 새해 비행무운을 기원했다.



◎ 항공력발전연구위원 위촉식

참모총장은 1월 27일 공군력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항공력발전연구위원(14명)을 위촉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위촉 후 위원들과 환담을 함께하면서 "올해 우리 공군은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면서 항공우주군으로 힘차게 도약하려 한다"며, "냉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공군을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을 기대하며,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 비상대기 근무부대 화상 격려 통화

참모총장은 1월 1일 오전, 경인년 새해를 맞아 비상대기 근무 중인 부대 장병들과 화상 격려 통화를 실시했다. 참모총장은 신년연휴에도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휴무일임에도 대비태세에 여념이 없는 장병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라며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새해 첫 일정 대전현충원 참배

참모총장은 1월 1일 공군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여는 첫 발을 내딛으며, 공군본부 참모 및 공군본부 지역 직할 부대장, 신분별 대표 등 40여 명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참모총장은 “호국영령님들의 숭고(崇高)한 뜻을 받들어 2010년, 국운융성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어 힘차게 전진하는 공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 개관식

참모총장은 1월 20일 주요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에서 참모총장은 “공군의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이 부산 및 경남 지역민들에는 멋진 건축물로 자랑거리가 되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한 후 휴식을 취하는 장병 및 군가족들에게 충분한 휴양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우리 공군이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면서 개관한 만큼 우리 공군의 힘찬 출발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사진 이재호 | 공군본부 비서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8전비 수송대대, '찾아가는 검차 서비스' 실시**

– 작전차량 업무공백 방지는 물론 유류비 절감까지

제8전투비행단 수송대대가 '찾아가는 검차 서비스'를 실시해 업무공백 최소화와 유류비 절감의 효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검차 서비스'의 검차 대상은 장갑차, 소방차, 항공기 견인차 등의 작전 필수 차량 총 93대. 이 93대 차량들은 공군 비행단 임무의 특성상 영공방위 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작전에 투입되고 있어, 제 시간에 정비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이 차량들은 크게는 5톤을 넘나드는 대형차량들로, 2주에 한 번씩 검차를 받기 위해 이동하려면 많은 유류비가 들게 된다.

8전비 수송대대는 작전 차량의 업무공백 방지는 물론, 유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찾아가는 검차 서비스'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8전비의 93대 작전 차량들의 엔진점검, 외관, 타이어 마모 상태 등 경정비가 용이해졌다. 더불어, 8전비 수송대대는 '찾아가는 검차 서비스'를 통해 연간 총 10,192ℓ의 유류와 약 6,206,928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전비 수송대대장 정재경 소령은 "이번 '찾아가는 검차 서비스'는 고유가에 따른 유류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수용자 중심의 수송 업무 체계 마련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제3훈비, 신종플루 백신접종 시작!**

제3훈련비행단 와룡문화회관에서는 항공의무대대 주관으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철저한 사전교육과 문진으로 실시되는 이번 신종플루 백신접종은 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단체접종이 실시되고 개별접종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3훈비는 파입부대를 포함하여 대략 2,400여 명의 장병 및 군무원들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제5전비, 국군간호사관생도 부대방문**

제5전술공수비행단에서는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국군간호사관생도 77명이 부대를 방문하였다. 간호사관생도들은 단장님 접견과 부대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항공의무후송 실습과 시뮬레이터 탑승을 하였다. 견학과 실전적 실습으로 수송기와 항공 환자수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 제18전비 제205전투비행대대, 12만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 달성!

– 세계에서 유래 찾기 힘든 「전투기 단일대대, 단일기종 무사고」 기록

– 지구–달 왕복 252바퀴 거리, 32년 4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고 없어

1월 13일, 제18전투비행단 205전투비행대대(이하 '18전비 205대대')가 '12만시간 무사고 비행 대기록'의 쾌거를 이룩하였다. 국내에서 '단일대대 단일 전투기종 무사고'로는 최장기록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무사고 기록으로 현재 한국기록원을 거쳐 기네스협회에 세계기록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기록은 전투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가 유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강릉비행단에서 수립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1977년 9월 20일 대대 창설 직후부터 3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기록한 거리는 약 9,720만km로 지구 둘레를 2,432바퀴 돌고, 지구와 달 사이를 252 차례 왕복한 셈이 된다.

기념비적인 12만시간 무사고 비행의 주인공이 된 오동욱 대위는 "공군역사에 길이 남을 뜻 깊은 비행을 직접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이번 대기록의 주역인 205비행대대장 김창훈 중령은 "12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은 대대를 거쳐간 모든 선 · 후배 조종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사고 비행기록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물론, 최정예 전투비행 대대로서 적과 언제 어디서 조우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더욱 실전적인 훈련에 정진해 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 제10전비, 백설과의 전쟁

1월 4일 제10전투비행단은 200mm 이상의 폭설 속에서 전 장병이 혼연일치가 되어 완벽한 영공방위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대규모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 제15혼비, 종합문화홍보센터 개관

제15혼성비행단에서는 지난 '08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1년 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10년 1월 28일 통합 문화공간의 메카가 될 공군 제1호 종합문화홍보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축한 종합문화홍보센터는 항공우주시대를 대비하여 통합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장병문화 ·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장병 정신전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신 시설의 영상제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UCC 동영상 제작 등 대내외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16전비, 전역예정 준사관을 위한 ‘특별한 전역행사’ 개최

– 부대에서 22년간 근무한 한상식 준위, 7년 동안 직접 손보며 정들었던 항공기를 타고 ‘하이택시(Hi-Taxi)’ 체험

1월 22일 제16전투비행단 라인정비중대에는 제16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비행단 주요 지휘관, 참모들과 무장전자정비대대 요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1월 29일 전역을 앞둔 한 준사관의 ‘하이택시(Hi-Taxi)’ 체험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인원들이다.

이날 행사의 주인공은 제16전투비행단 무장전자정비대대에 근무하는 한상식 준위(준사관 67기, 54세). 한 준위는 1976년 공군에 몸담은 이후 33년간 항공기 무장정비 요원으로 근무해왔으며, 1987년도에 16비로 배속받아 올해로 22년을 맞은 베테랑이다. 한 준위는 제202전투비행대대 곽정헌 대위가 조종하는 F-5F 전투기에 동승, 활주로에서 이륙 직전 상태까지 가는 하이택시를 체험했다. 한 준위가 탑승한 F-5F 전투기는 그가 제202무장지원중대에 근무하던 1998년부터 7년간 직접 손보았던 기종으로 그에겐 친자식과 같은 비행기이다. 하이택시 체험을 마친 한 준위에게는 16비 준사관단에서 마련한 축하의 꽃다발이 전해졌고, 샴페인 개봉행사가 이어졌다.

한 준위는 “7년 동안 손수 정비했던 항공기를 타보니 진한 감동이 밀려왔다. 부대에서 전역하는 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고맙다”며, “33년간 공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자랑이다. 전역 후에도 공군인으로서 공군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것”이라고 하이택시 체험행사 소감을 밝혔다.

◎ 제17전비, 30년 근속 휘장증 수여식

1월 15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해 30년 근속 휘장증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수여 대상자는 무장대대 소속 홍재안 주사로, 격려행사에는 비행단장과 소속 부대 지휘관, 군무원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비행단장은 30년 근속 휘장증과 휘장배지, 참모총장 격려서신과 부상을 수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 방포사, 사령관 · 주요 참모 미 35여단 방문

방포사령부 사령관 이하 주요 참모들은 지난 1월 12일 패트리어트 체계를 운영하는 미 육군 35여단을 방문하였다. 이 날 방공포병사령부에서는 사령관님과 주요 참모 14명이 참석하였고 35여단에서는 여단장과 주요 참모 10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한 · 미 양측은 진지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토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 환경의 현실을 공감하고 첨단 대공방어 무기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작전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상호 방문 및 토의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겨울, 스키장은 못 가도 꼭 가야 할 곳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展

우리는 삶 속에 숨어 있는 재치를 얼마나 만끽하며 살고 있을까. 만약 이 겨울, 날씨가 너무 추워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도 귀찮고 따로 밖에 나갈 일이 없어 무료해하고 있다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이 찾아야 할 곳이 있다. 바로 〈앤디 워홀의 위대한 세계〉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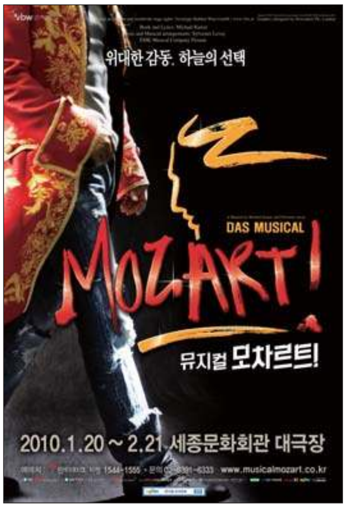
흔히들 앤디 워홀을 '팝아트의 거장' 이라고 부른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팝아트가 당신의 예술적성에 맞지 않거나 그가 상업적이라는 등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 앞에 서자. 처음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든다. 당신은 '내가 삶을 너무 재미없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다음엔, 미술관을 나가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 심하게 다툰 연인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도 앤디 워홀의 전시를 보고 나면 가능해진다. 이것이 예술이 가진 힘이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대의 앤디 워홀 전시다. 약 102점이 국내에 들어왔다. 최근 경매가 9억 원에 낙찰된 '마이클 잭슨의 초상화' 를 비롯해 마릴린 먼로, 비틀즈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화에서부터 앤디 워홀만이 가능한 상업적이면서도 격 높은 추상화를 볼 수 있다. 현재 하루 평균 2천명이 다녀가고 있다.

기간 4월 4일까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2 · 3층
가격 성인 12,000원 / 청소년 10,000원 / 어린이 8,000원
홈페이지 www.warhol.co.kr

청바지 입은 모차르트를 만나다 뮤지컬 〈모차르트!〉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세 명의 예술가가 있다. 한 사람은 과거의 예술가이고, 또 한 사람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이며 남은 한 사람은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신예들이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예술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과거의 예술가 가운데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모차르트를 기억하자.



모차르트는 천재다. 피아노 위에서 베토벤이나 쇼팽을 치다가 모차르트를 치면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건반을 누르다가도 같은 악보를 십 년 동안 연주하다 보면, 그가 천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 아래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뮤지컬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렸다. 무대 위에서의 모차르트는 아버지와 갈등이 심하다. 모차르트는 이 갈등을 교향곡이나 오페라가 아닌 재즈와 록으로 표현한다. 다른 배우들은 유럽의 고전 의상을 입으며 연기해도 모차르트는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는 것 또한 눈길을 끈다.

뮤지컬 〈모차르트!〉는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지컬로 이미 일본에서는 8년간 매출 1위를 기록한 뮤지컬의 기록을 깨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이제 아시아 두번째 시장인 한국을 노린다. 교향곡 천재의 뮤지컬 소풍, 음악 하나로도 설레기 충분했다.

기간 2월 21일까지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가격 VIP 12만원 / R 10만원 / S 8만원 / A 6만원 / B 4만원 / C 2만원(주말 공연은 +1만원)
홈페이지 www.musicalmozart.co.kr

찾아가는 「창공클럽」, 글쓰기 교육 지원할 터

- 제2대 「창공클럽」 회장에 취임한 고운기 시인을 만나다 -

취재 · 원고 **편집실** 사진 **중사 편보현 | 공군본부 공보과**

인터뷰를 위해 고운기 시인의 연구소로 발길을 내딛었을 때는 1월 중순. 서울에는 6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몰아쳤다. 불과 한 달 전이지만 1년 전인 작년 12월, 새 책을 발간함과 동시에 창공클럽 회장에 취임한 고운기 시인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달을 보냈다. 새롭게 취임한 고운기 회장에게 2010년 「창공클럽」 활동계획을 들어보았다.

Q.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셨습니다. 그 당시 출품했던 작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 어렸을 적부터 시인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하여 국문학과에 진학을 했고 대학교 3학년 때인 1983년 '밀물 드는 가을 저녁 무렵' 이란 시를 통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였습니다. 그 시는 데뷔작이자 대표작이죠. 그 당시 학우들이나 선배들에 비해 일찍 등단에 성공한 격이었지만, 너무 일찍 시인의 꿈을 이루어 버린 듯합니다.

Q. 선생님께서 발간하신 책을 살펴보니 유독 삼국유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이란 제목의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선생님과 '삼국유사' 의 관계라고 해야 할까요? '삼국유사' 가 선생님께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A. 저는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 고전시' 를 전공하였습니다. '한국 고전시' 라면 '향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향가들이 '삼국유사' 에 실려있는 이유로 제가 '삼국유사' 와 가까워진 이유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통신사 사절단들이 일본의 지식인들과 나눴던 필담을 번역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학은 쉽게 말해 한국학인데, 현재 연구주제를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문학, 사학, 그리고 철학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연구 과정에서 '삼국유사' 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 병사의 봇짐에 싸여 바다를 건넌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의 문고에 소장돼 있다 최남선에 발견되기까지, 약 700년간의 삼국유사에 담긴 사연을 풀어낸 책이 바로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입니다.

Q. 공군 창군 60주년이었던 2009년 월간 「공군」 10월 특집호에 '하늘에 만든 길' 이란 시와 같은 해 11월 공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시를 지어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군 관련 일에 발 벗고 도와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공군, 그리고 「창공클럽」과 인연을 맺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졌습니다.

A. 제가 공군 출신 예비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공군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음에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87년 6월부터 1990년 여름까지 육군에서 정훈장교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1989년 6월, 6 · 20계획에 의해서 현재 육군본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군본부의 정훈장교로 근무하던 강성구 중위와 휴일이면 주변 지역 답사 길을 동행하면서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군과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그리고 매형이 공군장교이며, 조카가 현재 사관생도 출신의 조종사이기에 공

군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2009년 공군과 함께했던 활동 중에 제가 지은 공군사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시가 비석으로 제작되는 영광스런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미래 생도들이 시의 어느 한 구절을 보고 군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Q. 작년 12월에 제2대 「창공클럽」 회장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A. 2006년 9월 공군본부의 요청으로 뜻을 같이한 50여 명의 문인들과 함께 창공클럽이 출범하였습니다. 미력하지만 전임 회장이셨던 도종환 선생님의 뒤를 이어 장병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창공클럽」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Q. 「창공클럽」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A. 제 기억으로는 2007년 1월경 황병산 부대체험을 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말로만 듣던 영하 20℃의 혹한과 키만큼 쌓인 눈을 직접 보고 1박을 했을 때 느껴졌던 고립감은 기억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지니 풍경은 굉장히 좋았으나 세상과 절연하는 이가 아니라면 자연 속에 갇힌 공포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공존하는 공포감이 미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Q. 「창공클럽」의 결성은 6·25전쟁 당시 결성되었던 종군문인단 「창공구락부」가 모태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바로 그 6·25전쟁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2010년이 「창공클럽」에게 주는 의미와 올해의 활동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A. 2010년은 한일합방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6·25전쟁 60주년, 4·19 50주년, 5·18 30주년을 맞는 우리 근대사에 대표적인 굴곡이 모인 한 해입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 중에 6·25전쟁은 현재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를 만들어낸 전쟁이고 3년간 300만명이 희생된 전쟁이며 60년이 지난 후에도 미완의 전쟁입니다. 비록 6·25전쟁의 기원에 대하여 외세의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의 가장 큰 장벽 역시 우리민족끼리 전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전쟁의 양 당사자가 허심탄회하게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며 그것을 인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창공클럽」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보다는 공군본부와 함께하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여기에 "찾아가는 「창공클럽」!"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창공클럽!"은 「창공클럽」 회원들이 부대체험을 하는 동안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글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3~4명의 병사를 대상으로 소규모 글쓰기 첨삭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단 병사들뿐만 아니라 군 자녀들을 위한 글쓰기 공부방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문인이 되고자 하는 공군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문인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군대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고독을 느낄 수 있고 자기 몸밖에 믿을 게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양과 자양분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길 당부합니다.

정월 대보름 소리

글 · 사진 권순정 | 제20전투비행단

바삭바삭 오병장의 부럼 깨는 소리
타닥타닥 김중사의 소원을 담은 달집 타는 소리
윙윙 윙윙 박하사의 쥐불놀이 깡통 돌리는 소리
쿵덕쿵덕 동네 어르신들 지신밟기 소리

어릴 적, 고향을 생각하며
오곡밥에 추억을 넣어서
맛깔나게 비벼놓고
그리움에 웃어보는 정월 대보름 소리

저마다 소리는 다르지만
풍년을 기원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넉넉한
정월 대보름 행복의 소리

공군ACE의 융중대책

글 대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요즘 TVB KOREA에서 방송하고 있는 '이중톈의 품삼국(品三國)'을 즐겨보고 있다. 2007년부터 중국의 강의 프로그램 '백가강단'을 통해 스타강사이자 스타작가로 급부상한 이중톈(易中天) 교수의 강의가 아주 흥미로운데, 지난 주 유표에게 의탁하여 형주에 머물던 비참한 유비군의 상황을 듣다가 문득, 지금 공군에이스의 상황이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다. 그렇다면, 그때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시했던 '융중대책'과 같은 획기적인 역전방법도 있지 않을까…

유비는 삼고초려를 통해 제갈량과 함께 천하의 형세와 앞으로의 행방을 깊이 있게 토론했다. 이 역사적인 만남 속에서 제갈량은 유비를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융중대책'인 것이다.

유비가 물었다.

"한 황실이 붕괴하여 간신들이 정권을 잡자 주상께서 몽진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 덕행과 능력을 살피지도 못한 채, 천하에 대의(大義)를 펼치고자 했으나, 지혜와 권술(權術)이 편협하고 얕아서 결국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지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선생이 생각하기에, 장차 어떤 계책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대화의 글자 수는 많지 않지만, 말하는 내용과 조리는 상당히 풍부하고 정연하다. 유비가 융중으로 와서 찾았던 것은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할 기술적인 인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정치적인 노선과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하의 대세를 먼저 말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말도 의미가 있다. 그 의미란 바로 상황을 설명하고, 결심을 보여주며, 성의를 나타내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얼마나 명확한지 지금의 공군에이스에 그대로 적용해도 좋다.

"지금 최하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결국 지금에 이르렀다), 또한 선수를 추가 모집하거나 시설을 확충하는 등 해결 방법도 없지만(지혜와 권술이 편협하고 얕아서), 플레이오프 진출의 꿈은 버릴 수 없으니(의지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선생이 생각하기에, 장차 어떤 계책을 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갈량은 대답한다.

"조조는 원소에 비해 명망이 미약했고 병사의 수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결국 원소를 이길 수 있었으니,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킨 것은 천시(天時)뿐 아니라 사람의 계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조가 원소를 이길 수 있었다면 장군이라고 어찌 조조를 이길 수 없겠습니까? 관건은 첫째는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획을 잘 꾸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갈량의 대답을 이렇게 바꿔보자.

"2008년에는 공군에이스에 밀려 최하위를 하기도 했던 이스트로도 지금 잘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군에이스라고 왜 잘나가지 못하겠습니까? 관건은 첫째는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획을 잘 꾸미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공군에이스판 융중대책을 찾아서

'지금 공군에이스의 상황은 유비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 말도 맞다. 지금의 비유는 억지에 가깝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당시의 유비는 지붕 위에 기와 한 장 없고, 아래에는 송곳을 세울 정도의 조그마한 땅도 없는 궁색한 상황이었다는 것. 지금의 공군에이스 역시 내내 최하위에 허덕이며 최다 세트 연속 패배 기록을 경신할 뻔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어 제갈량은 이 상황을 타개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다. (짧게 요약하면) "조조는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니' 그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손권은 '강동을 차지한 지 3대가 지났고, 지세가 험하며 백성이 복종하고 재능 있는 신하들이 그에게 등용되었으므로' 이쪽 또한 연합을 해야지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댈 수 있는 지역은 형주와 익주입니다. 두 지역은 국가는 풍부하지만 군주가 백성을 구휼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략이 있는 인사들은 현명한 군주를 얻기 원합니다. 이 같은 근거지를 마련하고 서쪽으로는 여러 융적(戎狄)들과 화친하고, 남쪽으로 이월(夷越)을 어루만지며, 밖으로는 손권과 화친을 맺고 안으로 내정을 수습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그러다 형세에 변화가 생기면 대장 한 사람을 시켜 완성에서 낙양으로 나아가게 하고, 장군은 직접 진천을 거쳐 장안으로 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유비는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막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눈앞이 환해졌다고 한다. 이른바 '패업'이나 '제업'이란 원래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군에이스의 문제해결 방법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첫 부분은 흉내내는 것이 가능하다.

"박영민이 충원됐고 공군에 당분간 전역하는 선수나, 추가 선수모집 계획이 없으니 선수를 충원하는 방법은 어렵습니다(조조와 싸우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과 대전에 공군으로서는-다른 병사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지원 가능한 최대한의 숙소와 연습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당장에 연습시설의 확충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손권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개선 가능한 부분은(손을 댈 수 있는 지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물론 고리타분하고 뻔한 대답은 연결할 수 있다. 선수들의 연습시간을 늘리자, 코치진을 보강하자, 연습 시스템을 바꾸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추진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게 획기적인 복안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공군에이스판 융중대책은 결국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역량이 부족해서 공군에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융중대책'을 당장 제시할 수는 없지만, 아쉬운 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와 공군에이스에 필요한 건 결국 '시간' 이라는 것이다. 유비도 형주에서 건안 6년(201년)부터 건안 12년(207년)까지 6~7년간이나 머무른 이후에야 제갈량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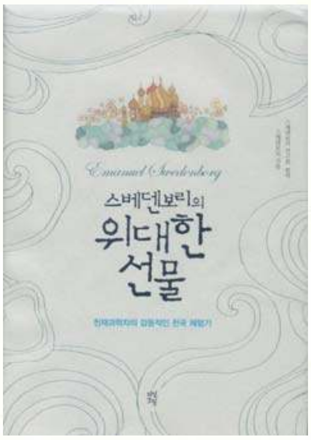
나이는 먹어가고 허벅지에 살은 쪄서 유비가 비육지탄(髀肉之嘆)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는데, 하루가 급했던 유비가 어째서 그 긴긴 시간 동안 제갈량을 찾지 못했을까? 제갈량을 몰랐던 건 아니다. 사마휘에게 와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 이미 오래였다. 제갈량이 은밀히 숨어버려서 찾기 어려웠다고 말하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유비가 어떤 사람인데, 그의 곁에 있는 부하들이 단단히 마음먹고 한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찾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게다가 제갈량은 이름을 숨기고 원수를 피해 숨어 있는 신비한 인물이 아니라, 형주의 관리 사회, 형주의 선비 집단 및 상류 사회와 왕래가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찾지 못할 수 있을까?

결국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비록 사마휘가 제갈량을 와룡이라 일컫고, 제갈량 본인도 '매번 자신을 관중과 악의에 비유' 하였지만, 그것은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였고, 유비는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서서의 추천이 있었던 후에야 제갈량을 찾았던 것이 아닐까. 제갈량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당시 유비, 관우, 장비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서 '잠잘 때도 같은 침상을 쓰고 형제처럼 우애가 깊었다' 고 하는데, 이러한 점은 수석 집행관이 되어 유비의 세력을 관리하고자 했던 제갈량의 이상을 실행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황이 위급해진 뒤에야 비로소 출사하여 초기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목표를 이룬 것일 수도 있다.

모두가 하나의 예상일 따름이지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 할 때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되고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공군에이스가 출범한 것은 2007년, 5명의 선수로 창단해서 선수가 비교적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었지만 현재도 (박영민 포함) 10명에 불과한 조촐한 식구들이다. 광팬에 가까운 나조차도 가끔은 지치는데, 다른 사람들 심정은 어떨까. 공군에이스 선수들도 그것을 알기에 매번 인터뷰 때마다 '죄송하고, 변함없는 애정에 감사드린다' 라고 반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비처럼 지금껏 이룬 것도 없고, 상황도 좋지 않지만, 의지만 죽지 않았다면, 반드시 어떠한 '계기' 를 만나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즉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참을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잔뜩 아는 척 해놓고 '결국 결론은 기다리라는 거냐' 라고 비난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쩔 수 없다. 내가 제갈량이 아닌 것을 어쩌란 말인가. 혹시 독자들 중에 '와룡' 이 계시지 않을까. 공군에이스판 융중대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내가 기꺼이 천거는 할 수 있다.



위대한 선물

스베덴보리 지음

글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사람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모두 다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접한 할머니의 죽음이 처음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실컷 놀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대문 앞에 걸려있는 노란색 장의(葬儀) 등불을 보고 숨이 턱 막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제게 할머니의 별세는 인간은 반드시 죽음에 이른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해준 대사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 역시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죽음을 보게 되었지만 이것은 죽음에 대한 익숙함을 더할 뿐 죽음을 해석해 낼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채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또한 그 삶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는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수용한다면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행진하는 무의미한 과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無에서 왔다가 無로 돌아가는 인생을 왜 살아야 할까요? 인간이 없이도 의젓하게 존재했던 지구에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모두 사라진다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주의 시간으로 보아서는 찰나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바닷가의 파도 거품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런 생각들이 삶의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결합을 한다면 아마 '인생 뭐 있나? 대충 살다 가지' 라는 비관적 인생관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 소개하는 '위대한 선물' 은 이런 자괴감을 문득문득 품었던 사람들에게 대단히 큰 메시지를 줄 책인 듯합니다. 18세기 스웨덴의 천재 과학자 스베덴보리(1688~1772)가 지은 이 책은 놀랍게도 과학이 아니라 사후세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로서 최고 반열에 올랐던 그는 57세의 나이에 심령적 체험을 겪은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7년이라는 기간을 영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며 보고 들은 바를 수만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남겼습니다.

어찌 보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폄하될 수 있는 이 책이 버젓이 전 세계 유명서점에서 널리 팔리는 이유는 저자가 30여 년 간 순수과학에 몰두하며 지대한 성과를 일궈낸 위대한 과학자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과학자에서 신비주의적인 영능력자로 변신했지만 자연의 이법을 수리적으로 해석해내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로 몰아붙이기에는 그가 설명하는 '영계' 의 시스템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는 '영계' 야말로 우리가 궁극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이며 이 세상은 그곳에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여행지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각기 3단계로 나누어진 '영계' 의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타인을 위해 행한 사랑의 농도에 따라 주어지는 최종 정착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몇 번씩 강조한 것은 성공한 인생이란 사회적 성취와 성공이 아닌 우주의 본질인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했는가의 여부로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질계인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도달하는 다음 세상이 진짜세상이라는 그의 말에 독자들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동의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나누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는 명백해집니다. 과학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최고의 권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과학자 스베덴보리가 전해주는 '영계' 이야기는 어쩌면 태고 때부터 이 세상을 움직여온 프로그램이 물질에 기반한 과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기독교 사상에 기초해서 저술되었지만 원불교 교도인 제가 읽기에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음을 첨언합니다. 밤하늘의 별이 눈에 들어오는 날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오죽헌 전경

유비무환 정신이 깃든 5천원권 지폐

글 · 사진 준위 전재인 | 제11전투비행단

화폐는 일상생활에서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富)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화폐 중에는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권 지폐가 있으며,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세종대왕, 그리고 2009년 6월 23일에 발행된 5만원권 지폐에는 신사임당이 각각 화폐의 모델이다.

신사임당(1504~1551)은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서 시, 서예, 그림, 자수 등에 뛰어난 예술가이자, 전통적인 우리나라 여성상인 현모양처의 대표주자이다. 아들인 이이는 우리나라 유교인 조선성리학을 완성한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며 정치가로 가장 청빈한 관리로 격몽요결과 임진왜란 전 십만 양병설을 주창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신사임당이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백옥포리에서 꿈에 동햇가에 이르렀더니 한 선녀가 바다에서 백옥 같은 흰 옥동자를 품에 안겨 주는 태몽을 꾸고 율곡을 잉태하여, 1536년 12월 26일 새벽에 외가인 강릉 북평촌 지금의 오죽헌(烏竹軒)에서 용이 동해 바다에서 집으로 날아와 자는 방[夢龍室(몽룡실)–용꿈을 꾼 방] 처마 밑에 있는 꿈을 꾸고 율곡을 출산하였다.

신사임당에게 3세 때부터 글을 배워 시(詩)를 읊었고, 7세 때는 사서(四書)를 배워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율곡리

화석정(花石亭)에서 시(詩)를 지었으며, 1548년 13세 때 진사 초시에 장원급제하였다. 율곡 나이 16세 때 어머니이자 유일한 스승이신 사임당이 별세하자, 묘(墓) 옆에서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큰 슬픔에서 비롯된 인생에 대한 회의와 허무함을 달래고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금강산에 입산수도를 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인생의 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29세까지 9번 과거시험에 모두 장원급제하는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불리며, 호조좌랑에 임명되었고, 33세 명나라 사신으로 다녀와 명종실록을 편찬하였으며, 34세에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어 동호문답(왕도정치의 이상을 문답 형식으로 서술한 책), 39세에 우부승지가 되어 만언봉사(성학의 주된 요지를 적은 상소문)와 40세에는 홍문관 부제학에 임명되어 성학집요(제왕의 학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책)를 지었다. 1577년, 율곡 나이 42세에 지은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지침서인 격몽요결에서 參禮儀(참례의), 시제의(時祭儀), 기제사(忌祭祀) 때 차(茶)를 올렸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으며 현재 차례(茶禮) 문화의 한 근거이다.

건국 후 200년이 지난 15~16세기, 대내적으로는 4차례의 사화와 당파 싸움에 젖어 있었다. 민심은 타락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명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타 여진족이 변방을 위협했으며 일본은 도요토미가 전국시대 분열의 혼란을 극복하였다. 이때 율곡은 시대상황을 진언하고 국력의 쇠약함을 안타까워하며 가까운 장래에 큰 환란을 예측하여 10만 군사를 양성하길 진언하였다. 도성에 2만, 8도에 각각 1만씩 두어 그들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무재(武才)를 훈련시켜 6개월로 나누어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하였다가 나라에 우환이 생기면 10만 명을 합쳐 나라를 지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십만양병설은 유비무환(有備無患) 정신의 표상이었다.

율곡전서 1권에 수록되어 있는 산중(山中)은 금강산 천학만봉리 산사에서 요산요수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고, 성리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입산수도 했을 당시 지은 차시(茶詩)이다. AF

산중(山中)

採藥忽迷路	약초를 캐다가 홀연히 길을 잃고서
千峰秋葉裏	천봉우리 휘감은 가을 단풍 속에서
山僧汲水歸	암자 스님이 물 길어 돌아가니
林末茶煙起	숲 속에서 차(茶) 끓이는 연기 피어오르네!

오죽이란 대나무 줄기의 빛깔이 까마귀색인데서 유래했으며, 신성한 곳에서만 그 뿌리를 내린다고 알려짐.

율곡 이이 동상

율곡이 태어난 몽룡실, 조선 초기 건축물로 보물 제165호임.

율곡 이이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

격몽요결과 벼루

신사임당과 율곡의 지폐

만지고 싶은 머릿결 만들기

글 병장 정 인 | 제32전대 4통제부

머리카락은 개인이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방금 일어나 부스스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세수는 못할망정 모자는 먼저 챙긴다던가, 잦은 염색과 파마, 각종 헤어 왁스와 젤, 값비싼 샴푸와 린스 등을 사는데 공을 들이곤 한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이런 머리카락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복구시킬 수 없는 조직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만지고 싶은 머릿결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

* 머릿결을 풍성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Plan

사람마다 머릿결의 두께와 숱에는 차이가 있지만 제대로 된 헤어 관리 플랜을 짜면 더 이상 모발을 가늘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통해 머릿결이 건강해지면 숱도 풍성해져 볼륨감있는 모발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머리카락의 주성분은 케라틴(Keratin)이라는 단백질이므로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섭취가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준다. 콩이나 두부, 된장, 육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제품 사용으로는 잦은 린스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머리카락을 코팅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린스는 샴푸 후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대로 씻어내지 않을 경우 두피에 쌓여 탈모로 이어질 수 있고, 머리카락을 가늘게 만들어 처지게 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이다. 머릿결을 풍성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린스의 사용을 줄이고, 샴푸의 단독 사용과 더불어 일주일에 2회~3회가량만 사용하는 헤어트리트먼트나 헤어 팩, 헤어 앰플 등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 비듬과 영원히 이별하는 Plan

비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불결하거나 청결치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비듬과 더러움의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 한 마디로 머리를 자주 감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비듬이 생기는 이유는 완전히 비듬균 때문이며, 이 비듬은 비듬 전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어깨 위로 우수수 떨어진 비듬과 영원히 이별하기 위해서는 비타민B1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B1이 부족하면 두피가 건조해져 비듬이 생기는데 땅콩이나 보리, 현미, 귀찮으면 쌀밥만 잘 먹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현대인의 서구화된 식습관이 비타민B1의 결핍으로 이어져 비듬이 쉽게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하루 3끼 밥만 잘 챙겨먹어 보자. 비듬 전용 샴푸의 경우 가급적 의약외품로 승인된 제품을 고르고, 향료나 아로마 오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 탈모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Plan

자신의 아버지가 탈모로 머리가 많이 빠졌다면 당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버지가 숱이 많고 머릿결이 풍성하다고? 그렇다면 삼촌 중에 탈모증이 있는지 찾아보라. 만약 없다면 사돈에 팔촌에 10촌까지 의심하라! 물론 농담이지만 이것은 탈모가 유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정말 우울하게도, 너무나 슬프지만 탈모는 절대 막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탈모가 진행되는 것을 늦추는 일이며, 그것 또한 관리를 중단하는 즉시 다시 시작된다. 심각하게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면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모 방지 전용 제품을 맹신하기보다는 순한 베이비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아쉽게도 탈모 방지 제품들의 효과는 광고보다 현저히 낮으며, 용량 대비 가격이 너무나 고가라는데 문제가 있다. 아마 그 비싼 비용을 치르고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더 심해질 수도 있으니 차라리 저렴하고 순한 베이비 전용 제품을 쓰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이다. 탈모에 좋은 식품으로는 한때 유행했던 검정색 식품의 섭취가 도움이 된다. 검은콩, 검은깨, 흑미, 심지어 오징어의 먹물마저! 탈모의 유일한 해결책은 자가 모발 이식이나 가발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 집에서 만드는 간단한 모발 영양팩

– 모발에 영양 듬뿍 주는 동백 오일 팩

예로부터 우리 내 여인들은 동백 오일을 이용하여 머릿결을 관리해온 만큼 영양분을 듬뿍 함유하고 있는 동백 오일은 모발에 힘을 주고 윤기 있는 머릿결로 가꾸어 주는데 톡톡한 역할을 해낸답니다. 플레인 요거트 1개에 동백 오일 10㎖가량을 섞어 머리카락에 충분히 발라준 후 1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구어 주세요.

– 가려움을 날려주는 알로에 녹차 팩

머리가 심하게 가렵거나 비듬이 많은 두피라면 알로에와 녹차를 활용해서 이겨낼 수 있답니다. 생 알로에는 껍질을 벗겨내고 잘 갈아 준 뒤 가루 녹차 두 스푼 정도와 섞어 두피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20~30분 정도 방치하고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 내주면 효과 만점이랍니다. AF

제니스웰 이벤트 당첨자 발표

짜잔♪ 드디어 지난 해 12월에 진행했던 안티-에이징 이벤트의 행운의 당첨자 10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둥~^0^ 축하드립니다.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당첨되신 10분께는 제니스웰에서 준비해주신 '화이트닝 에센스, 주름개선 에센스, 수분크림'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3종 세트를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진행되는 이벤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에 떨어졌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올 한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뷰티 바이러스 이벤트에 계속 응모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좋은 화장품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희운**(일반인)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조선우**(상병)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영화**(일반인)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박안드레아**(일반인)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최다민**(병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선희**(일반인)
경기도 의정부시 **이요셉**(병장)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신새미**(일반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강채진**(일반인)
충남 서산시 해미면 **강민정**(대위)

내 등 뒤에 든든한 버팀목

- 선임의 또 다른 의미 -

취재 · 원고정리 **편집실** 사진 **상사 한정근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상병 이한길 (672기
방포교 운영처

이병 정운형 (680기)
방포교 운영처

'이등병이 쏜다' 코너에 훈훈한 사연을 신청하시면, 월간 「공군」 취재진이 각 부대를 방문하여 감사하고 싶은 동료에게 간단한 피자파티를 열어드리고 그 사연을 월간 「공군」에 소개해 드립니다.

신청 : tribune44@af.mil(인트라넷),
tribune44@gmail.com(인터넷)

NOW!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쁘다

그림 **김영은**

◎ 일일병영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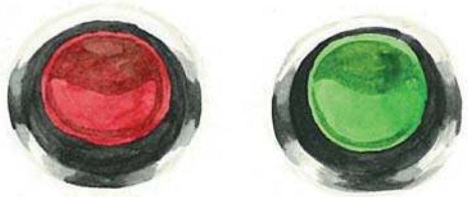
펩시가 코카콜라와 정면 승부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펩시 첼린지(PepSi Challenge)'라는 캠페인을 통해서였습니다. 펩시는 이벤트에 참석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펩시와 코카콜라를 시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펩시가 더 맛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만년 2인자였던 펩시는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 기세는 코카콜라의 아성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소비자들은 펩시 대신 코카콜라를 선택했습니다. 실제로 맛을 보았을 때는 펩시의 맛이 더 뛰어나게 느껴졌다곤 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던 코카콜라의 브랜드 파워는 맛의 차이를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했던 것입니다.

결국 펩시는 코카콜라라는 업계 최강자와의 무리한 정면승부 이후 오히려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로저 엔리코 전(前) 펩시 최고경영자였습니다. 그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탄산음료 시장에서의 무리한 경쟁과 사업 확장을 버리고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습니다.

다가오는 웰빙 붐을 예측하여 건강음료 사업으로의 진출을 도모했고, 콜라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넓히기 위해 맥도널드, 버거킹 등과 같은 패스트푸드 부문으로도 판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며 과감하게 시도했던 그의 전략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어 현재 펩시는 세계 2위의 글로벌 식음료 기업 자리에 올라있습니다.

탄산음료 시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생소한 분야로 다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엔리코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고 다음으로 좋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며, 가장 나쁜 것은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의 원칙을 고수하여 사업 전략과 조직 구성, 기업 문화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갔습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실수 없는 '최고의 결정'을 내리려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완벽한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법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상황이 갖춰졌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결정권을 가져가버리거나, 앞서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글 **박희숙** | 작가, 서양화가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지음

미국의 미술관 중에서도 최고의 미술관으로 꼽히고 있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고의 소장품을 자랑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19세기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처음 제안되어 설립되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술사 최초로 평범한 집안의 일상을 묘사한 작품이 로베르 캉팽의 〈수태고지〉다. 세 폭의 제단화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성경의 신비스러운 장면 수태고지를 다루면서 1420년대 북구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 패널에 있는 성모 마리아는 벽난로 의자에 앉아 가브리엘 천사가 온 줄도 모른 채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 뒤 둥근 창문에 햇살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나무 십자가를 멘 아기 천사는 예수 탄생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성모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 뒤로 생활 용기들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탁자 가운데 꽃병에 흰 백합과 성모 마리아가 들고 있는 흰 수건은 순결을 상징하고 멀리 구석에 걸려 있는 놋쇠 주전자는 구세주의 강림이 세상의 죄를 씻어줄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 탁자 위에 꺼져 있는 촛불은 정가운데에 놓음으로써 예수가 인간이 되는 성육신에 대한 암시다.

오른쪽 패널에는 요셉이 옆방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모른 채 쥐덫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작업대와 창가에 놓여 있는 쥐덫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주님의 십자가는 악마를 잡는 쥐덫과 같다. 악마를 유혹하기 위해 쥐덫을 달아놓은 미끼는 다름 아닌 주님의 죽임이었다'는 말을 의미한다. 왼쪽 패널의 무릎을 꿇고 옆방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이 작품을 제작하는 데 후원했던 피터 엥겔브레히트와 그레친 슈린메허스 부부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고대사를 주제로 한 작품이 푸생의 〈사비니 여인의 약탈〉이다. 이 작품은 플루타르크에 의해 전해지는 로마 기원에 관한 전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로마의 전설적인 건국의 아버지 로물루스는 건설한 새 도시에 인구가 부족하자 노예나 방랑자든 원하는 사람 모두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였다. 몇 년 후 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해 로마에 여인들이 부족해지자 결혼 적령기의 남자들의 원망이 많아졌다. 로물루스는 젊은 남자들을 위해 이웃의 사비니 족을 습격해 여인들을 약탈해오기를 마음먹는다. 그는 바다의 신 넵투누스 축제를 열고 사비나 족들을 초청한다. 로마의 군인들은 축제에 온 사비나 남자들을 쫓아버리고 여인들과 결혼한다. 로물루스 자신도 사비나 여인 헤르실리나와 결혼했다. 그 이후 사비니와 로마는 화해를 해 로물루스가 사비니의 왕까지 겸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로물루스는 붉은 색 옷을 입고 거대한 건물 위에 서 있다. 그의 모습은 화면 아래 복잡한 장면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화면 왼쪽 푸른 색 옷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안고 가는 로마 병사에게 저항하고 있다. 로마 병사 발밑에는 잡혀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

로마서에 따르면 사비니 여인들 중에 유부녀가 한 명 있었다고 한다. 그녀가 로물루스가 결혼한 헤르실리나다. 이 작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그려 넣음으로써 푸른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헤르실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아이 옆으로 노파가 잡혀가는 헤르실리나를 슬픈 듯이 바라보고 있다.

1

2

3

1. **〈수태고지〉** 1425~1430년경, 경첩 패널화, 64＊63(중앙), 64＊27(좌, 우)
2. **〈사비니 여인의 약탈〉** 1633~1634년경, 캔버스에 유채, 154＊209
3. **〈미주리 강을 거슬러 내려오는 피혁상인들〉** 1845년경, 캔버스에 유채, 73＊92

화면 오른쪽 한 아버지가 딸을 끌고 가는 젊은 로마 병사에게 달려들고 있고 딸은 아버지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다. 로마 병사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노인을 제거하기 위해 단도를 들고 있다. 이 장면과 대조적으로 화면 가운데 갑옷에 푸른 옷을 입고 있는 로마 병사와 그 옆에 사비니 여인은 나란히 걸어가고 있다. 이 장면은 사비니 여인들과 로마 병사들 간의 화해를 암시하고 있다.

니콜라 푸생〈1594~1665〉은 로마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주문을 받아 이 작품을 제작했다. 푸생은 이 주제를 깊이 연구해 고전주의 회화 양식에 따라 인물의 몸짓이나 자세, 표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미국의 신화를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이 빙엄의 〈미주리 강을 거슬러 내려오는 피혁상인들〉이다. 이 작품에서 붉은 색의 옷을 입은 피혁상인은 도시에 내다 팔 피혁을 옮기기 위해 배를 타고 있다. 배 중앙에는 피혁상인의 아들이 피혁 위에서 손으로 턱을 괴고 졸고 있다.

두 사람은 어슴푸레 한 새벽에 빛에 둘러싸여 있고 배는 수면 위를 미끄러지고 있다. 바람조차 없는 날씨는 수면의 일렁임을 만들지 못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만 만들고 있다. 검은 색 동물이 배 한쪽 끝에 매달려 있다. 검은 색 동물은 거친 야생의 삶을 상징한다.

조지 캘럽 빙엄〈1811~1879〉은 이 작품에서 우아하고 부드러운 붓놀림, 밝은 빛을 이용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터전으로 생활해야만 했던 사람들의 척박한 사람들의 삶을 드러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피혁상인들은 미국 국경지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생존을 위해 거친 환경 속에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생존 방식이 폭력적이고 거칠었지만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로서 빙엄은 그들의 삶을 존중했다. 미국의 국경지대의 영웅으로 표현한 이 작품에 미국 도시인들은 열광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설립 당시 이렇게 규모가 커질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후원과 문화 예술을 사랑한 소장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증에 의해서 최고의 미술관이 되었다. AF

‘가족’은 문장입니다

글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아이스크림 천재영문법〉 시리즈 집필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지음
http://midomiho@naver.com
http://www.meedoedu.com

‘희망배달’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직원 3,000명은 각각 매달 2,000원씩 기부한다는군요. 회사는 매달 그 금액에 따로 6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안아주는’ 포옹을 그리워하는 아이들에게 작지만 큰 사랑의 온정을 나눠준다고 해요. 며칠 전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는 그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한다는 취지의 ‘희망배달’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학년 초등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아이들의 이름만 적힌 쪽지를 보고 있는데도 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제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행사가 이어지는 두 시간 동안 참 다행스럽고 기쁘게도 아이들은 마냥 밝고 맑았습니다. 제가 쓰는 만화책 〈이미도의 아이스크림 천재영문법〉을 선물하고, 훗날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 몇 줄의 글도 써주며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무렵 저는 그만 제 가슴에 큰 눈물 자국 하나를 남겨야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등의 글이 담긴 카드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벌써 그런 표현마저 배워버리다니!

포옹과 사랑의 영화 〈러브 액츄얼리〉

연인들의 사랑을, 그 사랑이 일구어내는 가정의 행복을, 그리고 그 행복의 가치를 무척 따스하고 유쾌하게 그린 영화가 있지요. 바로 〈러브 액츄얼리 Love Actually〉입니다. 이 영화의 미덕은 포옹의 장면으로 시작해 포옹의 장면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아무 말 안 하고도 맺고, 포옹하고, 풀고, 포옹하는 사랑의 과정을 이보다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장면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는 이 포옹의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가 강조하는 메시지들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알랭 드 보통의 포옹의 메시지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최신작 산문집인 〈공항에서 일주일을 A WEEK AT THE AIRPORT〉에서 포옹의 의미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널리 퍼진 이혼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공항에서 재결합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눈에 띈다. 이런 맥락에서 냉정하거나 금욕적

인 척하는 것은 이제 소용없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통통한 어깨를 꽉 끌어안고 무너지며 눈물을 뿌릴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힘과 강인함을 투사하며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지독하게 연약하고 위태로운 피조물들이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을 습관적으로 무시하고 또 그들 역시 우리를 무시하지만, 늘 우리들 행복의 가능성을 볼모로 잡고 있는 소수가 있다. 우리는 그들을 냄새만으로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들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이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prevalence of divorce in modern society guaranteed an unseasing supply of airport reun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n this context, there was no longer any point in pretending to be sober or stoic: it was time to squeeze a pair of frail and yet plump shoulders very tightly and founder into tears. We may spend the better part of our professional lives projecting strength and toughness, but we are all in the end creatures of appalling fragility and vulnerability. Out of the millions of people we live among, most of whom we habitually ignore and are ignored by in turn, there are always a few who hold hostage our capacity for happiness, whom we could recognize by their smell alone and whom we would rather die than be with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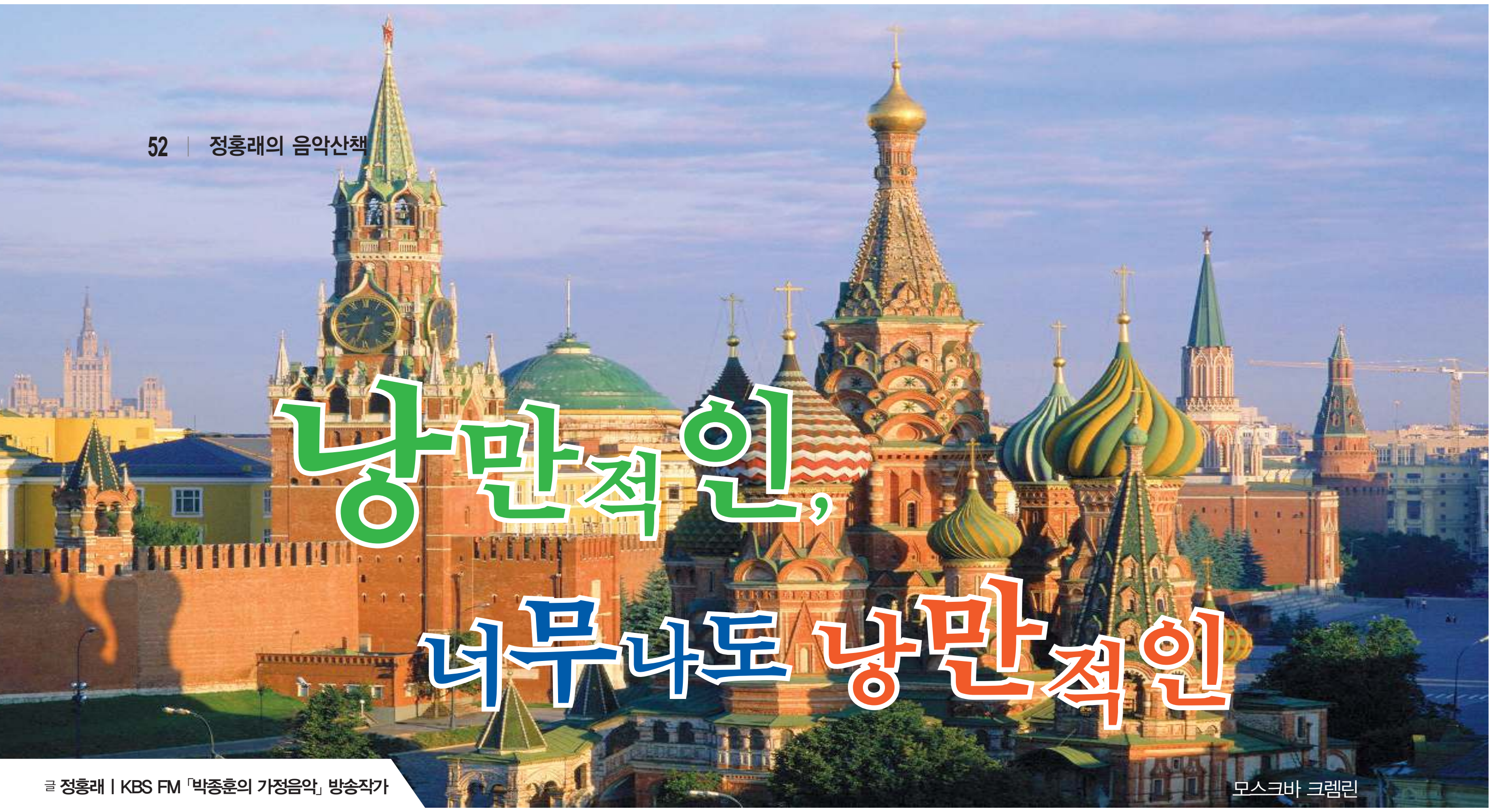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런 메시지를 영상으로 잘 보여주는 영화가 〈러브 액츄얼리〉이지요. 이 작품에는 아름다운 마음씨의 연인들과 가족들이 나와 다양한 인간군상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 모두는 가족의 확장 형태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 절묘하게 얽혀 있고요. 뮤지컬 영화 뺨칠 만큼 사랑스럽고 신나는 노래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잘 부탁합니다"라고 쓴 어린이를 만나고 와서일까요, 영화를 다시 보는데 유독 눈에 밟히는 노랫말이 들리더군요. 엄마를 잃고 새 아빠랑 단둘이서 사는 어린 샘이 '짝사랑'하는 동급생과 함께 공연하는 장면에서 소개되는 노래입니다. 곡명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어디서나 빛들이 눈부시게 반짝여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온 사방을 가득 채워요. 크리스마스를 위해 많은 걸 원치는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건 바로 'You'예요(All the lights are shining so brightly everywhere. And the sound of children's laughter fills the air.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부모 중 누구와도 따로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만큼은 노랫말의 이 'you'는 분명 엄마와 아빠 두 분 다일 것입니다.

가족은 단어가 아닙니다. 가족은 문장입니다

'Family isn't a word. It's a sentence.' 이 영문은 '가족은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라는 뜻이지요. '가족'을 의미하는 family는 틀림없이 단어인데도 문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것처럼 가족도 모든 이의 사랑이 모여야 비로소 완전한 가정이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낭만적인, 너무나도 낭만적인

글 정홍래 | KBS FM 「박종훈의 가정음악」 방송작가

모스크바 크렘린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다. 한동안 눈 구경 안 해도 될 것 같고,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다. 그런데 올해처럼 추운 겨울을 지내보니, 저 멀리 '러시아' 사람들이 '보드카'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드카 없이 추위를 견뎌내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시베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수도 '모스크바'의 수은주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보드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를 술주정뱅이들의 나라로 보면 정말 곤란하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러시아 문인들은 그 어느 작가들보다 깊이 있는 시각을 작품에 담았다. 영화 〈닥터 지바고〉를 쓴 작가 '파스테르나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지, 삶을 준비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삶 그 자체, 삶의 현상, 삶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숨 막히도록 진지하다."

파스테르나크가 〈닥터 지바고〉를 집필하던 시절은 스탈린의 통제와 감시가 삼엄했던 시기다. 작가촌에 모여 살던 문인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파스테르나크가 삶의 기쁨을 찾고자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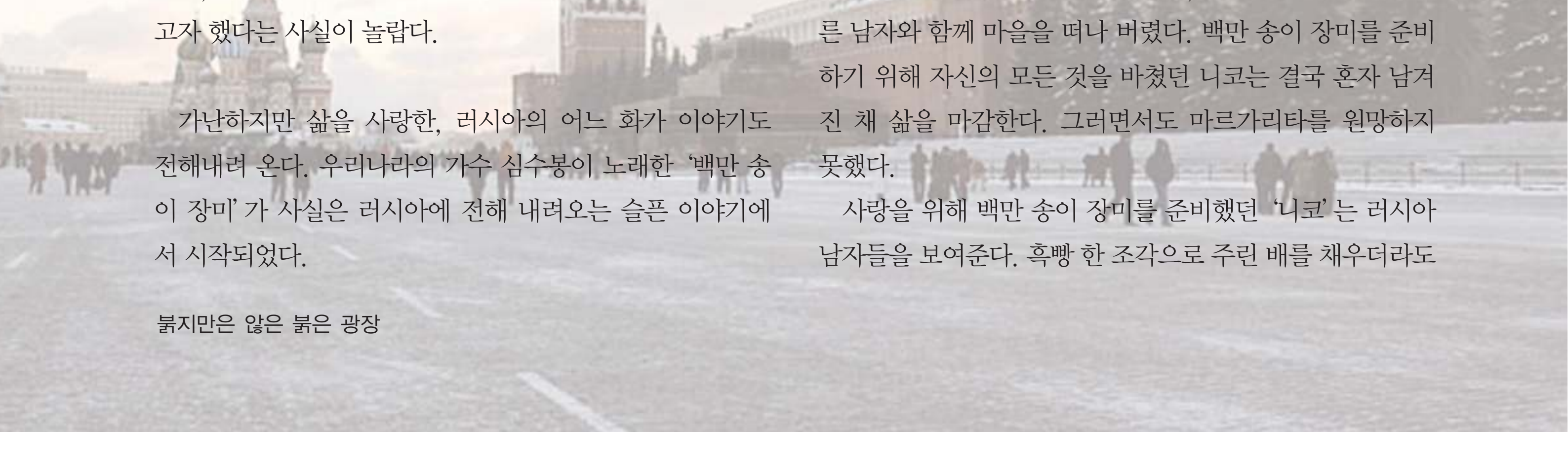
가난하지만 삶을 사랑한, 러시아의 어느 화가 이야기도 전해내려 온다. 우리나라의 가수 심수봉이 노래한 '백만 송이 장미'가 사실은 러시아에 전해 내려오는 슬픈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화가를 꿈꾸던 '니코 피로스마니(Niko Pirosmani, 1862~1918)'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젊은이였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니코는 그저 와인 한 병이면 간판을 만들어주는 '간판쟁이'일 뿐이다. 위대한 화가가 되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카페에서 일하는 여배우 '마르가리타'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마르가리타가 일하는 카페에 찾아와 그녀를 바라보던 니코였지만,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다. 마르가리타도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깡마른 가난뱅이 화가 니코의 마음을 받아줄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마르가리타가 사는 마을에 붉은 장미를 가득 실은 수레가 도착한다. 한 송이, 한 송이... 수레에서 장미가 내려질 때마다 아름다운 향기는 마르가리타의 집으로, 그녀가 사는 마을 전체에 퍼져 나갔다. 백만 송이 장미를 준비하기 위해 그림도, 집도 모두 팔아버린 니코는, 그렇게 해서 마르가리타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것은 장미가 아름다운 그 순간뿐이었다. 장미가 시들고 나자 그녀의 마음도 시들해졌고, 결국 마르가리타는 다른 남자와 함께 마을을 떠나 버렸다. 백만 송이 장미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니코는 결국 혼자 남겨진 채 삶을 마감한다. 그러면서도 마르가리타를 원망하지 못했다.

사랑을 위해 백만 송이 장미를 준비했던 '니코'는 러시아 남자들을 보여준다. 흑빵 한 조각으로 주린 배를 채우더라도



붉지만은 않은 붉은 광장

식탁 위 화병에 장미를 꽂는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순수한 영혼을 버리지 못하는, 낭만적인 사람들이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941년 6월… '불가침 조약'을 깨고 러시아로 쳐들어온 독일군은 불과 4개월 만에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군은 크렘린궁과 모스크바를 폐허로 만들 태세였다. 수세에 몰린 '스탈린'은 '붉은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비밀리에 집결한 군사들 앞에 스탈린이 나타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연설로 사기가 높아진 러시아군은 그 길로 전장에 나아가 독일군을 무찌르는데 성공한다.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퍼레이드를 벌였던 '붉은 광장'… 사실 이 붉은 광장이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러시아어 '크라사'라는 말에서 '아름답다'는 단어와 '붉은'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나왔다는 것이다. 붉은색은 공산주의를 떠올리게 하지만, 본래 러시아 사람들은 붉은색을 좋아하는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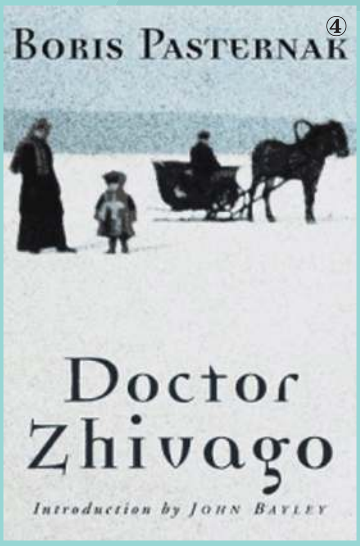
이쯤해서 러시아 음악가들을 소개해야겠다. 러시아의 낭만을 가장 잘 표현한 작곡가로 '차이코프스키(Tchaikovsky, 1840~1893)'를 먼저 꼽고 싶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호두까기 인형〉 포스터가 눈에 띈다. 동화를 무대 위로 옮겨 놓은 것 같은 환상적인 무대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으로 완성된다.

발레음악 〈호두까기 인형〉을 들어보자. '사탕요정의 춤' '꽃의 왈츠'… '모스크바 크렘린'을 닮은 것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무대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된다. 그런가 하면, 〈백조의 호수〉도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 그 자체다. 가늘고 흰 백조를 닮은 발레리나의 모습… 러시아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명의 러시아 작곡가로 '림스키-코르사코프(Rimsky-Korsakov, 1844~1908)'를 꼽고 싶다. 그가 작곡한 〈세헤라자데〉를 듣고 있으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피겨 여왕 '김연아'가 생각난다. 바이올린이 연주하는 매혹적인 선율…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김연아 선수의 연기는 동양적인 매력으로 더욱 빛났다. '신밧드의 모험',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 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천 일 동안' 목숨을 지킨 현명한 여성이 바로 '세헤라자데'가 아니던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바다를 항해하던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는 그 이국적인 경험을 음악에 담아냈다.

또 러시아는 엄청난 괴력을 지닌 연주자들을 배출한 나라다.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음악가 '호로비츠', '하이페츠'가 바로 러시아에서 태어난,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공산주의라는 '철의 장막' 속에 갇힌 음악가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습만 했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더욱 더 굳은 결심으로 예술혼을 꽃피웠던 러시아의 음악가들… 그들을 떠올리며 생각해 본다. 얼마 남지 않은 추위를 더욱 강인하게 버텨야겠다고 말이다. AF

❶ 모스크바 크렘린
❷ 산뜻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스웨덴산 Absolut Vodka
❸ 〈호두까기 인형〉 무대배경
❹ 소설 〈닥터 지바고〉
❺ 니코가 사랑했던 여배우 '마르가리타'



졸업(卒業)

글 대위 장동하 | 제30방공관제단

얼마 전 2월을 며칠 앞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꽃샘추위, 설날, 봄방학, 가장 짧은 달, 28일 등 대답은 각기 달랐지만 이것들 중 하나라도 빼놓고는 온전한 2월을 떠올리기 어렵겠다 싶은 생각에 나도 모르게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런데 그 중 가슴에 가장 와 닿았던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졸업(卒業)'이었다. 이르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 중 ·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또는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한 번쯤은 끝과 시작, 그리고 이별이라는 소중한 성장통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 것.

아마도 졸업이라는 단어에 연세를 지긋하게 잡수신 50~60세 어르신들이라면 벤(더스틴 호프만)이 사랑하는 여인 엘레인(캐서린 로스)의 손을 이끌고 결혼식장을 뛰쳐나가는 마지막 장면과 그것을 배경으로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가 잔잔하게 깔리던 영화 '졸업(The Graduate)'을 떠올릴 것이고, 30~40대의 중 · 장년층이라면 미국 드라마 '프렌즈'로 유명한 데이빗 쉼머와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의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을 맡았던 '졸업(The Pallbearer)'이라는 영화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졸업 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장면들도 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로 시작하는 졸업식 노래에 '아우들아 잘 있거라'로 화답했던 초등학교 졸업, 몰래 숨겨둔 밀가루와 계란을 던지는 후배들의 짓궂은 장난을 껌 몇 통 사주는 것으로 피할 수 있었던 중 · 고등학교 졸업, 사랑하는 부모님께 학사모를 씌워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던 대학교 졸업 등 누구나 한 번쯤은 졸업식에서 주인공이 되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졸업식의 주인공이 되어 보았는데 그 중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졸업식이 있다. 때는 1998년 2월, 고등학교 졸업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졸업식에 참석한 여러 친구들이 캠퍼스의 낭만에 대한 기대와 설렘에 한껏 부풀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졸업식장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마지막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한없이 시려왔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몇 년 만에 어렵게 구하신 직장마저도 IMF로 인하여 그만 두시면서 가세(家勢)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심지어 고3 때에는 집에 쌀독이 텅텅 비어 아침 끼니를 거르고 등교하고, 점심 식사는 수돗물로 채우는 우울한 날도 있었다. 당시 나는 그야말로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진학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담임 선생님께서 내게 다가 오셨다. 사실 내가 먼저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동안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함이 제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였지만 빈손으로 찾아뵙기도 죄송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자격지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지 어수선한 졸업식장에서 일부러 나를 찾기 위해 한참을 두리번거리신 눈치셨다.

선생님께서는 졸업을 축하한다는 아주 짧은 덕담과 함께 조그마한 선물을 건네어 주셨고 나는 수줍게 감사 인사를 드렸다. 그러나 선생님의 그 짧은 말씀과 눈빛에는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노력하면 분명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따뜻한 격려와 무한한 신뢰가 가득 담겨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받은 선물을 집에 와서 뜯어보니 그룹 전람회의 『졸업』이라는 앨범이었다. 그날 밤 선생님께서 주신 CD를 반복해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만에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다. 다행스럽게도 그 사이 집안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비록 다른 친구들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3년 동안 경험했던 좌절과 슬픔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줬다. 그 결과 대학교 1학년 때에는 공군 조종장학생에 선발되어 공군과 인연을 맺었고 졸업하기 전 시인으로 등단하고 대학 생활도 수석으로 마칠 수 있었다. 비록 짧은 선생님의 격려였지만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날 선생님의 말씀과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문득 생각해보니 선생님께서 선물해주셨던 전람회의 마지막 앨범 『졸업』의 동명 타이틀곡인 「졸업」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온다. "세월이 지나면 힘들기만 한 나의 나날들이 살아온 만큼 다시 흐를 때 문득 뒤돌아보겠지. 바래져 가는 나의 꿈을 찾으려 했을 때 생각하겠지. 어린 시절 함께 했던 우리들의 추억들을 ……."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그 때 내게 단순한 음악 CD 한 장이 아닌 희망과 꿈을 선물해주셨던 선생님 덕분에 당시의 힘들었던 기억들은 이제 내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

아마 조만간 또 다른 학생들이 10여 년 전의 나처럼 선생님의 품을 떠날 것이다. 우리는 평생에 네댓 번 경험하는 이별을 해마다 경험하고 계실 선생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허전하실까 생각해본다. 휑하게 비어 버린 교실을 바라보며 떠나간 제자들의 멋진 미래를 간절히 기원하고 계실 선생님께 올해는 스승의 날보다 석 달 먼저 찾아뵙고 그 때 드리지 못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겠다.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엽서나 월간 「공군」 5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공군이 지식경제부 주관 국가품질 경영대회에서 타 기관들을 제치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참모총장님의 "미래 전력의 핵심은 인력이며 교육은 투자다"라는 리더십이 고스란히 담겨진 것 같습니다. 〈이등병이 쏜다!〉의 주인공 30단 정훈공보실 병사들의 사진포즈가 너무 익살스럽고 재미있어서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공군의 다양한 소식들과 장병들의 병영생활이 곳곳에 녹아나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군의 소식지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묘한 매력을 지닌 '공군 섹션 잡지' 같네요.

– 대구시 달서구, 황선동 –

#2

비행기를 좋아해서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를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시대별로 비행기종을 사진으로 정리해 놓아 보기 쉽게 해 주신 것도 인상깊었습니다. 공군을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내로, 자식으로 둔 공군가족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세요.

– 경북 경주시, 권명희 –

#3

〈Bird Alert!〉 '하늘의 왕자 보라매'을 통해 공군의 상징이 왜 보라매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보라매의 힘차고 시원한 비상과 닮은 2010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타군과의 합동훈련의 모습을 월간 「공군」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조화로움 속에서 더욱 돋보이는 그런 공군의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훈련을 자세히 소개해주기 바랍니다.

– 서울시 구로구, 김성희 –

#4

〈지휘관 기고〉를 통해 공군 장병으로서의 존재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특히 故 박 소령님을 곁에서 보신 분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어서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군이라는 제약된 환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흥미있는 기사들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기도 여주군, 박상현 –

#5

2009년 한 해를 정리한 사진을 보면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네요. 대통령 표창을 받아 유종의 미도 거두었구요. 〈공군의 지금〉과 〈Hot Sketch〉를 보니 언제나 역동적인 공군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이외에도 앤디워홀의 비누상자 이야기, 공군의 상징 보라매까지 읽을 거리가 다양하고 풍부했습니다. 앞으로 현역과 예비역의 교류의 장이 마련되면 좋을 듯합니다. 제대한 공군 예비역의 현재 모습을 다루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 충남 당진군, 박남숙 –

#6

가장 먼저 눈에 띈 기사는 '2009년 한 해 밑줄을 긋다!' 입니다. 2009년 공군에서 시행한 주요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고개를 끄덕여 봤습니다. 일년 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0년에도 신선하고 아름다운 소식들을 담은 12권의 책을 기대합니다.

– 인천시 연수구 김건완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

주소 :

□□□-□□□

요 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09. 6. 1~2010. 5. 31
제501군사우체국
제 1 호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

주소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홍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2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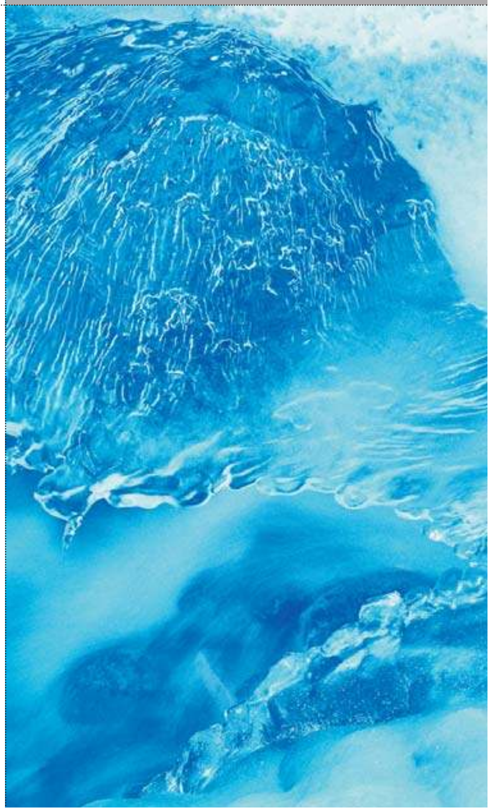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2월호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2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2월 26일까지

1. 전군을 통틀어 유일하게 '붉은 베레'를 쓰며 조종사 구출이 기본 임무인 공군 요원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는가?

2.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하여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란 의미를 지닌 공군 휴양소의 명칭은?

3. 최근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을 발간하였으며 창공클럽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은 누구인가?

※ 12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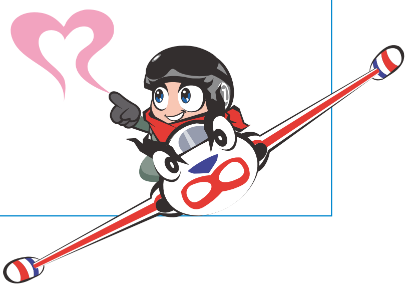
정답
1. T-38
2. 인재개발 분야
3. 해동청 보라매

퀴즈 당첨자
대구 달서구 **황선동**
경북 경주시 **권명희**
서울 구로구 **김성희**
경기 여주군 **박상현**
충남 당진군 **박남숙**
인천 연수구 **김건완**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935/042-552-6935

간첩 · 테러범 · 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ROK AIR FORC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